

Annual Report
2014
KBS 시청자상담백서



KBS  한국방송

Contents

【소통】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4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6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43
4. 상담내용 분석	57
5. 정보공개 안내	82
※시청자 권익보호란?	83

【변화】

6. KBS고충처리인 활동	85
7. 제작진의 답변	87
8.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23
- KBS 민원사무처리규정	128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33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35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KBS시청자본부는 시청자권익을 담당하는 시청자국내에 시청자서비스부를 두고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4조(업무)¹⁾에 따른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실천이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365일(1일, 24시간 상담) 동안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시청자상담실의 방송전문 상담원은 23명이며 주간 2교대, 야간 2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KBS프로그램의 다양한 방송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다.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민원의 정확한 처리와 사내공지까지 신속함,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의 삶의 친절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KBS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가장 먼저 경청하고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서 KBS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 공유하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KBS사내에 게시되고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KBS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KBS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어 시청자에게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office.kbs.co.kr>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1) 4p 참조

【방송법 제 54조】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 · 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 · 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 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 제 5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요소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 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14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4년 한 해 동안 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466,15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346,123건 74.3%)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률
2014년	466,153	▼ 28,976	-5.90%
2013년	495,129	▼244,689	-33.10%
2012년	739,818	▲ 136,432	22.61%
2011년	603,386	▼ 95,339	-13.64%



KBS 시청자상담실

Home · 로그인 · 사이트맵 · KBS 바로가기 · 화면크기 · 기본 · 🔍

시청자상담실 | 시청자 의견 · 답변 | 방송정보 | 공지사항 | FAQ

공지사항 | 사이트맵

방송에 대한 모든 것
한국방송공사(KBS) 시청자상담실입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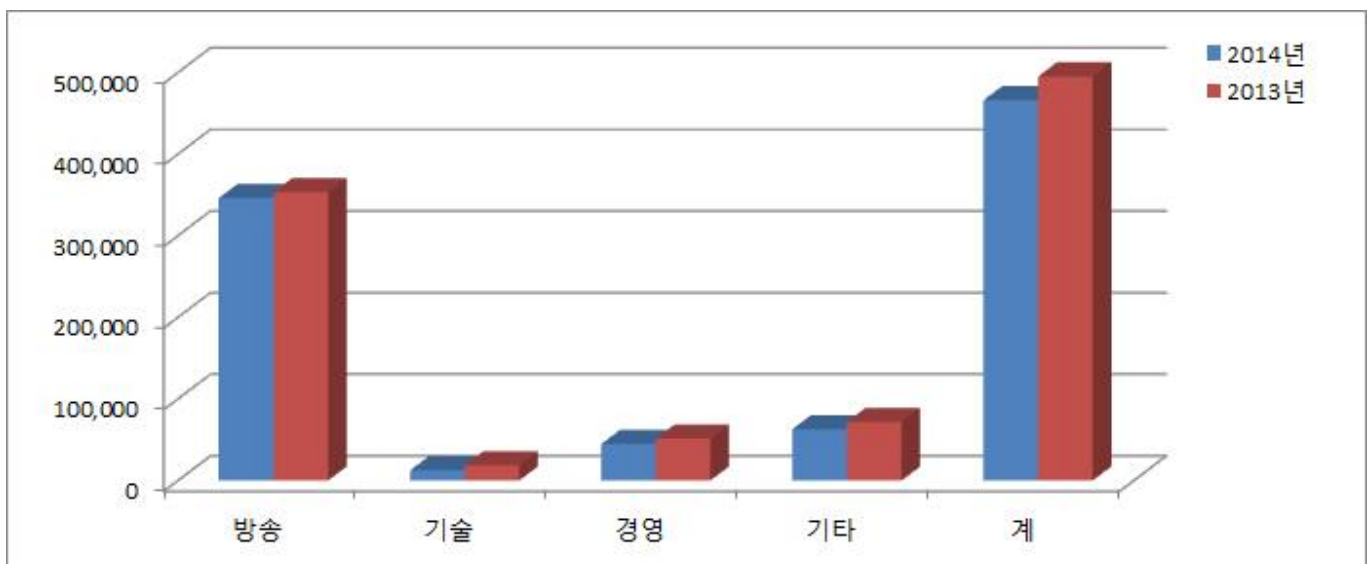
- [플래시 플레이어] 다시보기가 되지 않는 ... [1,001,789]
- [원도우미디어 플레이어] 화면이 보이지 않... [231,565]
- [원도우미디어 플레이어] 동영상을 누르면 ... [119,309]

2 시청자의견 집계

■ 2014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9,079	1,927	3,920	5,160	40,086
2		24,964	1,689	3,682	4,792	35,127
3		27,380	1,702	3,962	5,701	38,745
4		32,901	1,649	5,426	6,208	46,184
5		31,984	1,043	3,627	5,849	42,503
6		29,724	547	2,857	5,481	38,609
7		27,613	635	3,515	5,415	37,178
8		26,386	643	3,273	4,852	35,154
9		24,529	666	3,296	4,656	33,147
10		29,618	692	3,598	5,169	39,077
11		28,645	542	3,593	4,728	37,508
12		33,300	649	3,908	4,978	42,835
계	건	346,123	12,384	44,657	62,989	466,153
	비율	74.3%	2.7%	9.6%	1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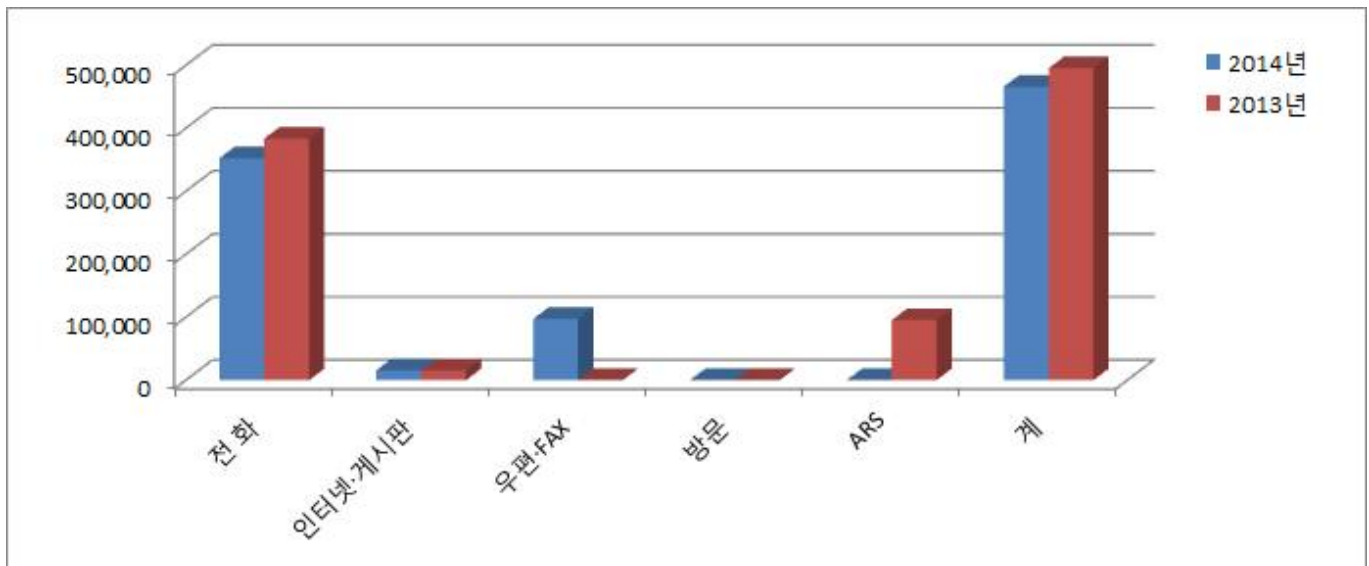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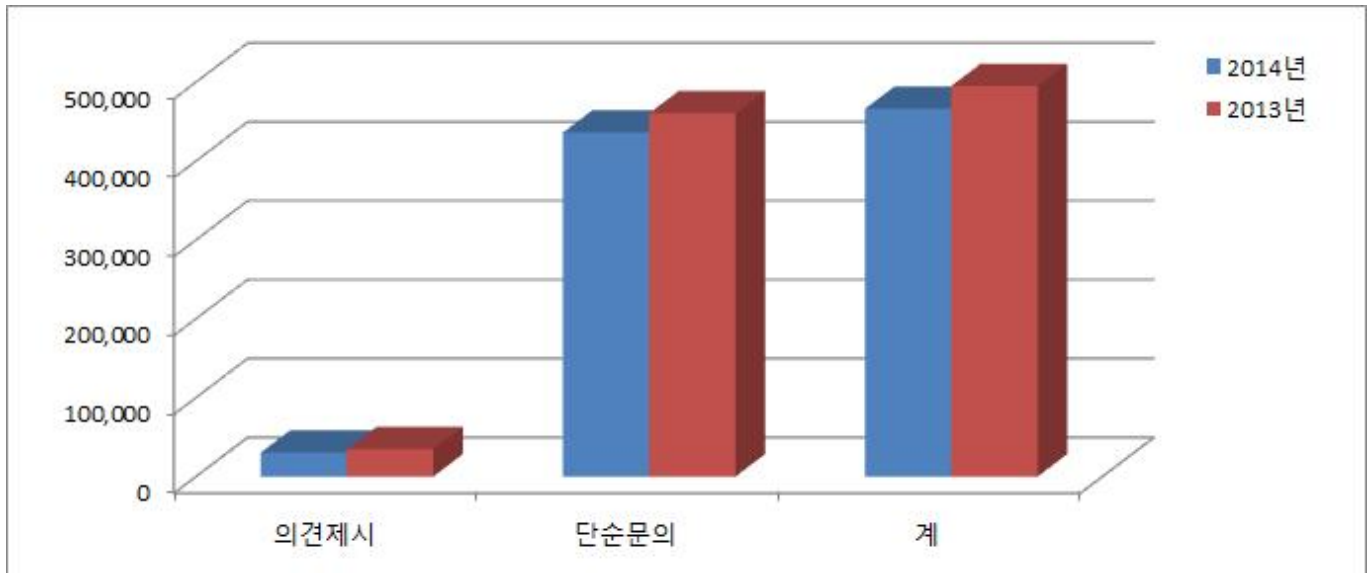
■ 2014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 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29,734	1,131	9,153	21	47	40,086
2		26,901	1,244	6,937	17	28	35,127
3		30,745	993	6,937	25	45	38,745
4		35,741	1,323	9,057	14	49	46,184
5		31,084	1,646	9,695	43	35	42,503
6		28,518	2,307	7,742	13	29	38,609
7		27,902	930	8,275	33	38	37,178
8		26,077	941	8,080	22	34	35,154
9		25,494	913	6,670	40	30	33,147
10		29,706	821	8,487	24	39	39,077
11		28,544	758	8,144	29	33	37,508
12		31,985	2,682	8,100	25	43	42,835
계	건	352,431	15,689	97,277	306	450	466,153
	비율	75.6%	3.4%	20.9%	0.1%	0.1%	100.0%

[2013년, 2014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3년, 2014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4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 2014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38	54	1	52	41	36	11	-	4	237
2		37	109	41	76	30	94	12	-	89	488
3		15	81	10	61	120	23	11	-	1	322
4		333	893	-	76	21	10	45	-	14	1,392
5		99	1,324	-	102	13	24	9	-	3	1,574
6		13	615	13	49	22	13	8	-	41	774
7		37	90	5	63	31	7	14	-	9	256
8		24	55	2	50	82	29	10	-	5	257
9		63	43	190	82	26	5	14	-	2	425
10		84	75	3	58	32	10	7	-	19	288
11		23	31	-	50	34	10	6	-	22	176
12		146	49	-	83	43	14	8	-	49	392
계	건	912	3,419	265	802	495	275	155	-	258	6,581
	비율	13.9%	52.0%	4.0%	12.2%	7.5%	4.2%	2.4%	-	3.9%	1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KBS 뉴스9	분실된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심 칩에도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갈아 끼운 뒤 초기 비밀번호 '0000'을 누르고 자신만의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장면과 휴대전화 유심 칩에 보안설정을 하는 방법이 자료화면으로 소개됐다. 해당 뉴스를 보고 직접 따라했다가 초기 비밀번호 3회 오류, 고유번호 10회 오류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다. 앞으로는 뉴스를 보고 시청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한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기 바란다.	10
	강연 100°C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 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1월 26일 「강연 100°C」가 방송되지 않고 「겨울방학특집 꿈을 말하다」가 방송되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린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편성 변경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 한다. 앞으로 편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고지해 주기 바란다.	8
2월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를 중계했다. 중계에는 개그맨 강호동이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개그맨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씨름 선수로 동계올림픽과는 관련이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연예인을 세계인이 참여하는 중요한 경기에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설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출연료도 지급 될 것이며 소치까지의 출국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작비 절감에 노력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중계에서는 경기를 잘 아는 전문가를 해설위원으로 섭외해 주기 바란다.	84
3월	1 대 100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보기 1번은 '성주 수박', 보기 2번은 '전라남도 순창 고추장'이라고 나왔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으로 인정돼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 그런데 보기 2번에서 '순창군'은 행정구역 상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시청자로서 행정구역명이 틀린데 매우 불쾌했다. 지식을 겨루는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구역명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51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3월	열린 음악회	3. 18.(화)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청 신청을 했다. 녹화 전날인 17일(월)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방청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이 되었어도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공지가 있었다. 시청자상담실에 문의하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취소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취소라는 답변을 들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함께 방청하기로 한 지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 본인 또한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낸 상황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시청자의 참여를 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녹화 전날에 방청 취소 처리를 공지한 제작진의 무책임한 처사에 화가 난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시청자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45
4월	KBS 뉴스특보	전라남도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KBS 뉴스특보」를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발 빠른 소식보다 비슷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답답하다. 시청자들은 현장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알기 원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반복적인 자료화면을 보여주지 보다는 실시간으로 취재한 영상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뉴스 특보 제언] 「KBS 뉴스특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방송됐다.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장 대처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또한 「뉴스특보」 초반에는 자료화면 영상만 나오고 KBS가 직접 취재한 사고 현장이나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영상은 나오지 않아 신속성과 현장성도 부족해 보였다. 더불어 화면 상단에 탑승자와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자막으로 알려줬는데 탑승자의 인원이 중간에 줄었다 다시 늘는 등 혼란스러웠다. 사망자나 구조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초 탑승인원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BS는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대형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 참사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적절한 표현 사용 요청] 화면 하단에 '단원고 학생 무사귀환 기원 촛불 문화제 열려'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문화제'는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어 생존을 기원하는 의미와 상반된다. '촛불 기원제'나 '촛불 위로제'라고 표현해야 적절해 보인다.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진행자 의상 제언] 기상캐스터가 분홍색 계열의 재킷을 착용하고 일기에 보를 진행했다. '세월호' 침몰 사태로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와 어울리지 않게 밝은 분위기로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 주기 바란다.	570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4월	정규 방송 편성 요청	방송 3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16일(수)부터 주말인 20일(일)까지도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하루 종일 뉴스특보를 방송하고 있다. 실시간 구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지만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불신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으며 뉴스특보 마저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KBS는 타방송사와 달리 1, 2TV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TV에서는 오락과 예능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291
5월	KBS 뉴스 파행 사태	KBS 기자협회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KBS 뉴스9」 등 뉴스가 기존 뉴스 시간보다 단축되거나 결방됐다. 보도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차질을 주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 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없다. 현재 사태로 인해 시청자들이 KBS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다시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861
	KBS 보도국장 발언 불만	최근 KBS 보도국장이 뉴스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수는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를 생각했을 때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상황을 외면한 발언으로 희생자 가족들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다. 공영방송 보도국장의 발언이라고 하니 더욱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처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뉴스를 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보도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바라며 KBS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273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6월	KBS 파업 사태	1. KBS 파업으로 뉴스가 단축되거나 결방되고 있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장 퇴임을 요구하기 바람.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방송을 정상화해 주기 바람. 2.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KBS 파업사태까지 일어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말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람. 3. KBS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어려워 보임. 사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람. 4.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우리나라 언론의 바른길을 위한 파업을 지지함. 5. 청와대의 지시로 사장이 보도에 간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사장에게 공정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 6. 방송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방송이 과다 편성됨.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람.	399
	KBS 930뉴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로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11일(수) 「KBS 뉴스9」의 교회강연 보도 이후 후보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질 논란이 빚어진 데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발언이 아닌 일부 발언만 보도하는 것은 실제 발언자의 의도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KBS는 일부 발언만 편집해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체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앞으로 일부 영상만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30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7월	1TV 스크롤 자막 오류	「러브 인 아시아」 방송 중 '잠시 후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방송됩니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지난 6. 6.(금) 종영됐고 후속으로 「고양이는 있다」가 방송되고 있다. 이미 종영된 드라마가 다시 방송되는 것인지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9
	KBS 뉴스광장	동남아가 원산지인 농작물 '삼채'가 항암 효능이 뛰어나다는 정부기관의 연구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인도 삼채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삼채의 효능이 없다고 나온 뒤 주문 취소가 쇄도해 피해가 크다. 그동안 삼채의 우수한 효능은 KBS 뉴스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 번 방송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식품연구원의 자료만 가지고 삼채가 효능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타기관의 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해 구체적으로 방송했어야 했다. 애써 공들여 키운 작물이 잡초 취급을 받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연구 자료를 근거해 삼채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추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4
8월	뮤직뱅크	지난 29일(화), 그룹 JYJ가 3년 만에 정규 2집 '저스트 어스(JUST US)'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백 시트(BACK SEAT)'는 발매와 함께 각종 음원차트 실시간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2년 소속사와의 분쟁이 해결돼 현재는 지상파에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지상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룹 JYJ의 출연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31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까지 찾아볼 수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난 1일(금) 방송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돼 무척 아쉽다. 부부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3」를 제작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28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여기는 인천 -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 : 중국)	23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남자 배드민턴 단체 금메달 결정전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라이벌인 중국과의 결승전이기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중국에게 승리한 의미 있는 경기였다. 그런데 지상파 3사 모두 배드민턴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다. 본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연령대인 중·장년층 이상은 경기를 볼 수 없어 답답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열린 경기를 외국 방송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KBS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관 방송사로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경기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파 방송사간 적절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다양한 경기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12
	아침마당	장가간 아들의 집을 맘대로 가도 되는지 고부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어머니, 며느리, 시아버지, 아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충과 경험담을 털어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여성 출연자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며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고 했다. 또한 출연자 석중일은 본인의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잔소리밖에 안한다며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부정적인 존재로 단정 지었다. 본인은 아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송이 오히려 고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에는 막무가내로 아들네 집에 가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부모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를 어렵게 생각하며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시부모들이 많다.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가 시청하기 불쾌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끼어드는 등 산만한 토론이 이어졌다. 각자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의를 갖춘 뒤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29
10월	해피 선데이	19일(일)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 오프 1차전' 경기 중계로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결방됐다. 홈페이지에 야구 중계 시 18시 15분부터 「해피 선데이」가 방송된다고 돼있어 기다렸지만 야구 중계가 끝난 뒤 「대국민 토크쇼 안녕 하세요 스페셜」이 방송되고 이후 「해피 선데이」'1박 2일'이 방송됐다. 자막으로 「해피 선데이」의 편성 시간 변경에 대해 고지했지만 정작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결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방송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는 1, 2부로 나눠 다른 코너를 방송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38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0월	KBS 뉴스9	3일(금), '단기 4346주년 개천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2014년의 개천절은 단기로는 서력 기원전 2333년을 더해 계산하면 '단기 4347년'이 된다. '주년'의 경우 한 주기가 돌아오는 1년의 개념으로 '4346주년'이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다른 '단기'와 '주기'를 함께 사용해 헷갈렸다.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앞으로는 '단기'와 '주년'의 표현 중 하나의 단어만 사용해 주기 바란다.	23
11월	KBS 홈페이지 이용 불편	23(일),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보기(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KBS미디어(1644-8560)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연결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했다. 방송은 전파 뿐 아니라 웹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및 사후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시청자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 운영시간을 늘려 주기 바란다.	20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평일 저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본 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토요일 낮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다가오는 주말(13일) 편성표를 보니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월화 드라마 「힐러」의 재방송이 편성되어 있었다. 드라마는 극의 전개과정이 중요한데 더 이상 재방송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아쉽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인처럼 연령이 많은 사람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드라마가 종영되기까지 기존대로 주말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91
12월	영화극장	국내 영화를 비롯해 해외 명작을 우리말 더빙으로 시청할 수 있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영화극장」이 45년 만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 층이 현저히 줄어 외국 영화를 구입해 방영하기 보다는 내부 콘텐츠 개발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을 가지 못하거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소수계층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것 또한 공익적 기능일 것이다. 「영화극장」 폐지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37
	DMB 오디오 품질 제언	DMB를 통해 「콘서트 7080」을 시청했다. 그런데 배경음악이나 반주소리는 잘 들리는 반면 진행자와 가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시청하기 불편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더불어 DMB 보급도 확산되고 있어 이동 중에도 DMB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DMB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들의 욕구에 맞춘 특화된 DM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36

1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9]	10	분실된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심 칩에도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갈아 끼운 뒤 초기 비밀번호 '0000'을 누르고 자신만의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장면과 휴대전화 유심 칩에 보안설정을 하는 방법이 자료화면으로 소개했다. 해당 뉴스를 보고 직접 따라했다가 초기 비밀번호 3회 오류, 고유번호 10회 오류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다. 통신사로 확인해보니 통신사마다 초기 비밀번호가 다르고 고유번호의 경우 10회 오류 시 유심 칩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는 통신사마다 초기 비밀번호가 다르다거나 초기 비밀번호나 고유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유심 칩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앞으로는 뉴스를 보고 시청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한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기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9	개그맨 유민상, 이희경, 박지선 등이 출연하는 코너로 줄부가 되어 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그린 코너인 '누려'를 방송했다. 그런데 화면 왼쪽 상단에 코너명이 자막으로 '두근두근'으로 잘못 표기됐다. 코너명이 변경된 것인지 혼동을 느꼈다. 자막 표기에 실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강연 100°C]	8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 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1월 26일 「강연 100°C」가 방송되지 않고 「겨울방학특집 꿈을 말하다」가 방송되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린 시청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편성 변경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 한다. 앞으로 편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고지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	7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국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첫 방송됐다.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과 화려한 액션, 성인 연기자 못지않은 아역배우들의 연기가 특히 돋보였다. 「감격시대」를 통해 KBS 드라마 제작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직 방송 초반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계속해서 훌륭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로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
1TV [세계는 지금]	6	중국의 허베이 성 모피시장을 찾아가 모피를 얻기 위해 잔인한 동물 도살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방송했다. 그 곳에서는 동물들이 몸도 못가눌 정도로 좁은 우리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상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인들이 쇠뿔등이로 동물을 때려서 죽이고 바닥에 내팽겨 치는 장면이 거의 화면효과 처리도 없이 나와 무척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또한 죽은 동물들의 혈흔과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줬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잔인한 장면이 여과 없이 나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자극적인 자료화면은 철저히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013 KBS연기대상]	5	소녀시대의 윤아가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현재 윤아는 「총리와 나」에 출연하고 있으며 8회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아직 방송 초반이고 완벽하게 연기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업이 가수인 연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해 수상자 선정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 본업이 연기자인 후보도 많다. 현재 연기자가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도 중요하지만 연기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연기자를 선정해 상의 본질과 가치를 높여 주기 바란다.
2TV [신년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라이벌 가수들의 노래들로 꾸며진 신년특집 방송을 시청했다. 가수 바다가 출연해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을 불렀다. 호소력 짙은 가창력과 객석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는 좋았지만 의상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온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 불편했다. 신체에 밀착된 의상은 속옷처럼 보였고 입고 있던 치마를 뜯어 더욱 선정성을 부각시켰다. 청소년도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의 의상을 별도로 규제해 주기 바란다.
1TV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4	최근 보기 어려웠던 정통사극 프로그램으로 첫 회부터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정통사극임에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전개로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드라마 중간 중간에 등장인물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표기되는데 자막이 표기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자막표기 시간과 횟수를 늘려주기 바란다. 더불어 고조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 국가인 '단군조선'을 이성계가 세운 '조선'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 드라마 전개 상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이다.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시대에 맞는 나라 이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2TV [특별기획드라마 설록 시즌3]	4	해외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외화를 우리말 더빙으로 방송해 줘 재미있게 시청했다. 설록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말이 빨라 자막으로 방송해 줄 경우 다 읽기도 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말 더빙으로 시청하니 드라마의 몰입도도 높아지고 배우들의 표정이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 좋았다. 성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목소리 또한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외화를 우리말 더빙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4	개인주의적인 세태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운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획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소위 막장 드라마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다. 극 중 언니 공수임(황선희 분)이 동생 공들임(다솜 분)을 좋아하는 남자 친구 박현우(백성현 분)를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모습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자매 사이가 멀어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억지스러운 내용 전개는 공감하기 어렵다. 또한 윤지영(김혜선 분)이 아들 박현우(백성현 분)와 공들임(다솜 분)의 교제를 반대하고 결혼 상대자를 마음대로 결정지어 버리는 내용은 시청하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기획의도에 맞게 따뜻한 가족애와 감동을 실어 밝은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2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84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를 중계했다. 중계에는 개그맨 강호동이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개그맨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씨름 선수로 동계올림픽과는 관련이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연예인을 세계인이 참여하는 중요한 경기에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설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출연료도 지급 될 것이며 소치까지의 출국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작비 절감에 노력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중계에서는 경기를 잘 아는 전문가를 해설위원으로 섭외해 주기 바란다.
2TV [수목 드라마 골든 크로스]	83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 후속 드라마인 「골든 크로스」에 탤런트 박시후가 섭외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탤런트 박시후는 지난해 성폭행 논란에 휘말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본인 스스로 방송활동을 자제하는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골든 크로스」에서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남자의 역할로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렸던 고난의 시간을 보낸 탤런트 박시후가 맞기에 적합한 배역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우로서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탤런트 박시후를 꼭 섭외해 주기 바란다. (51명) 탤런트 박시후가 KBS의 새 수목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접했다. 박시후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KBS 방송 출연 규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영방송은 출연자들에 대한 잣대나 규제에 더욱 면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탤런트 박시후의 섭외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32명)
1TV [KBS 뉴스특보]	41	17일(월) 21시경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해 당시 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중 참변을 당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사로서 신속하게 특보로 전환해 가족과 국민의 염려를 해소시키고 정확한 속보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정규방송을 신속하게 중단하고 특보 체재로 전환해 재난 분석 및 실시간 정보 전달 등 말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
2TV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17	우리나라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준결승 경기를 시청했다. 이호석 선수가 2위로 달리던 중 미국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아쉽게도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주에 탈락한 박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다. 경기가 끝난 직후라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 것이며 더군다나 탈락으로 인해 선수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속상할 것이다. 억울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지만 앞으로는 선수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편안한 상태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설 특집 백년의 전설, 단언컨대]	14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부모님 세대와 풍요롭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출연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배지(badge)'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소효정 교수가 최근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이야기하면서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스펙이 필요 없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날 출연자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수,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즉 엘리트들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반 직장인과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스펙이 중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진행자 조영남은 방송 내내 다리를 꼬고 구부정한 자세로 임해 거만하게 느껴져 시청하기 불쾌했다. 설 연휴 온 가족이 시청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진행자가 기본적인 방송 태도를 갖추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편성불만	12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9일(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0m 경기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3명이 나(김보름, 노선영, 양선영 선수) 출전했는데 중계가 되지 않았다. 주말 오후에 열리는 경기라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해 주지 않아 무척 아쉬웠다. '올림픽 대표방송은 KBS'라고 홍보하면서 메달 유망주에 대한 중계방송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올림픽을 위해 4년 동안 준비한 선수와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빠짐없이 중계해 주기 바라며 비인기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10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음성으로는 자동이체 서비스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앵커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우 깜짝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방송사고로 생각돼 바로 사과를 기다렸으나 그대로 뉴스가 진행됐고 클로징 멘트에 진행 중 착오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마무리 됐다. 정확한 보도가 중요한 뉴스인 만큼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방송사고가 있을 시 빠르게 사과를 해 주기 바란다.
1TV [KBS 파노라마]	7	김정은 집권 2년 북한의 모습을 방송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앞두고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방송한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방송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북한의 최고 권력에 대해 '김 씨 왕조'라고 표현했다. 더군다나 '김 씨 왕조'를 발언한 장성민 대표는 5. 18 민주화 운동 시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프로그램 출연자로 북한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시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1TV [특집 KBS 뉴스라인]	7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 소식을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그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붕괴되면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습기를 머금은 눈의 무게가 무거워진 것도 사고의 원인일겠지만 눈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둔 채 방치한 것도 문제로 보인다. 건물 구조상의 시공 문제뿐 아니라 리조트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해야 했다. 또 사고 현장의 피해상황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유가족'이라고 발언했는데 '유가족'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한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조를 안타게 기다리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안타까운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실종자'란 표현이 적합하다.
2TV [생생 정보통 플러스]	6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겨울 여행지로 일본을 소개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망언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망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방송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일본의 여행지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삼가주기 바란다.

3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1 대 100]	51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보기 1번은 '성주 수박', 보기 2번은 '전라남도 순창 고추장'이라고 나왔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으로 인정돼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 그런데 보기 2번에서 '순창군'은 행정구역 상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시청자로서 행정구역명이 틀린데 매우 불쾌했다. 지식을 겨루는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구역명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열린 음악회]	45	3. 18.(화)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청 신청을 했다. 녹화 전날인 17일(월)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방청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이 되었어도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공지가 있었다. 시청자상담실에 문의하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취소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취소라는 답변을 들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함께 방청하기로 한 지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 본인 또한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낸 상황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시청자의 참여를 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녹화 전날에 방청 취소 처리를 공지한 제작진의 무책임한 처사에 화가 난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시청자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1TV [KBS 뉴스9]	24	길고양이들로 피해가 늘면서 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물학대라며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반론이 있다고 했다. 늘어만 가는 길고양이는 쓰레기를 뒤지고 분변 냄새와 한밤 울음소리까지 더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행했고 피해 민원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했다. 그런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문제점만이 보도되고 길고양이들이 버려지게 된 이유나 대안에 대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점만 부각되어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순서라며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시청자 투표 질문을 보면 '서울에만 25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고 중성화 수술비용도 마리당 14만 원 정도인데 늘어나는 길고양이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되어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넘쳐나고 있어 공존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중성화 수술비용만 부각되고 안락사 비용이나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제거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를 여부를 투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제거가 아닌 보호를 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TV [KBS 뉴스9 - 스포츠]	6	진행자 엄지인 아나운서가 2월 28일(금) 방송을 끝으로「KBS 뉴스9(스포츠)」에서 하차했다.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스포츠 뉴스를 생동감 있게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엄지인 아나운서에게 응원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개그 콘서트]	5	첫 방송된 '숨은표절찾기' 코너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절 시비를 개그로 표현해 풍자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3월 9일(일) 방송에서는 드라마「굿 닥터」를 패러디한 '굿모닝 닥터'의 제작진과 「개그 콘서트」의 제작진이 만나는 상황이 펼쳐졌다. 「개그 콘서트」 PD로 출연한 권재관이 "주원도 바보고 애도 바보야"라고 하니 드라마국 PD로 나온 이상훈이 "아니, 주원 씨는 바보연기를 하는 거고 박성광은 그냥 바보고."라고 했다. 자폐 증상을 두고 '바보'라고 표현한 것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을 폄하하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장애를 희화화 시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4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극으로 재구성한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 중 배경음악 음량이 너무 크게 들려 연기자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드라마는 흐름이 끊기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송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또한 등장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표기되는데 표기 시간이 짧아 다 읽기도 전에 지나가버린다. 주 시청자가 중·장년층임을 고려해 자막 표기 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	우송대학교 박영란 교수가 출연해 봄나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줬다. 썸바귀 뿌리 무침을 만든 후 시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음식을 만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과 본인이 먹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모습이 나왔다.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거나 본인이 사용한 접시를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하게 하는 장면은 너무나 비위생적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요리를 시연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위생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TV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4	조선의 건국 과정을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담아내 즐겨 시청한다. 조선 건국의 비화와 역사적 사실들을 알 수 있어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전통 사극의 명맥을 이어가며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TV [추적 60분]	4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라돈 석고보드'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방송했다.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로서 일반인들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제작진이 직접 실험한 결과 아파트나 건물의 마감재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누구도 발암물질 라돈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돈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환기와 라돈 절감 시공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고발해 병폐를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이 도입되기를 희망해 본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1TV [아침마당]	4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출연해 조선시대 왕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양한 비화를 통해 순탄치 않았던 왕실 생활을 어렵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여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공감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왕실과 궁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줘 시청하는 내내 시선을 떼지 못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훌륭한 강의를 해 준 신병주 교수와 제작진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강연 도중 신병주 교수가 "서울에서 뽕나무 발이 많았던 무대가 잠실이다. 잠실의 잠이 뽕나무 잠을 쓰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잠실(蠶室)'은 '뽕나무 잠'이 아닌 '누에 잠(蠶)'을 사용한다.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특보]	570	[반복 보도 지양] 전라남도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KBS 뉴스특보」를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발 빠른 소식보다 비슷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답답하다. 시청자들은 현장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알기 원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반복적인 자료화면을 보여주기 보다는 실시간으로 취재한 영상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뉴스 특보 제언] 「KBS 뉴스특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방송됐다.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녹장 대처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또한 「뉴스특보」 초반에는 자료화면 영상만 나오고 KBS가 직접 취재한 사고 현장이나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영상은 나오지 않아 신속성과 현장성도 부족해 보였다. 더불어 화면 상단에 탑승자와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자막으로 알려줬는데 탑승자의 인원이 중간에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등 혼란스러웠다. 사망자나 구조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초 탑승인원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BS는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대형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 참사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적절한 표현 사용 요청] 화면 하단에 '단원고 학생 무사귀환 기원 촛불문화제 열려'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문화제'는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어 생존을 기원하는 의미와 상반된다. '촛불 기원제'나 '촛불 위로제'라고 표현해야 적절해 보인다.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진행자 의상 제언] 기상캐스터가 분홍색 계열의 재킷을 착용하고 일기예보를 진행했다. '세월호' 침몰 사태로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와 어울리지 않게 밝은 분위기로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정규 방송 편성 요청	291	방송 3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16일(수)부터 주말인 20일(일)까지도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하루 종일 뉴스특보를 방송하고 있다. 실시간 구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지만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다. KBS는 타방송사와 달리 1, 2TV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TV에서는 오락과 예능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보도 요청	238	사고신고 및 구조 작업 지연: 지난 16일(수),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해양경찰에 침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뒤 30분이 지나서 도착했지만 이미 배의 3분의 2가량이 물속에 잠긴 뒤였다. 현지 어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선박이 사고 나기 1시간여 전부터 바다에 정지해 있었다고 한다. 조난 신고가 1시간 이상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어 의문만 가중되고 있다. 구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에 주력해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27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현재 구조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2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로 계속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시청자가 직접 전화 참여를 통해 구조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대형 참사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기 보다는 「KBS 뉴스특보」를 통해 구조 활동 및 진행상황을 계속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광장(경인)]	20	「KBS 뉴스광장(경인)」을 시청하던 중 앵커의 발언과 무관한 자료화면이 나왔다. 동일한 현상이 10분가량 지속됐지만 방송이 잘못 나온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바란다.
2TV [특선영화 차형사] 1TV [KBS 네트워크 특선 노장불패]	15	「특선영화 차형사」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간의 조건」도 2주 연속 결방이 됐다. 그런데 「인간의 조건」을 결방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영화가 「특선영화 차형사」였다. 영화 차형사는 강력계 형사(강지환 분)가 마약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패션모델로 변신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이다. 웃음과 재미를 주는 예능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바 없어 결방의 의미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수많은 실종자와 희생자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영화를 편성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영화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 「KBS 네트워크 특선 노장불패」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 16일(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침통함 속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즐겁게 축하공연을 즐기는 내용이 방송돼 시청하기 불편했다. KBS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당분간이라도 웃고 즐기는 내용의 방송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14	봄 개편을 맞아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가 폐지되고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가 새롭게 신설됐다. 유사한 성격의 경제 프로그램이지만 방송시간대가 축소돼 시사성과 심층성이 없어진 느낌이 든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동향과 시사 현안,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알기 쉽게 짚어주어 유익했다. 독보적인 점유율로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폐지돼 무척 아쉽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을 통해서도 폐지 불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 개편 시 김방희 씨가 맡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 주거나 방송시간을 종전처럼 확대해 주기 바란다.
2FM [황정민의 FM대행진]	10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이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소식을 보도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안에서 어떠한 지시가 오갔는지 낱알이 밝혀지면 웃기지 않을까? 어느 정도 국정원을 지켜줄 필요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발언 직후 말실수라며 사과를 했지만 해당 발언은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식으로 느껴졌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같아 청취하기 불쾌했다. 최근 국정원 간첩 증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시기에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 여론을 형성해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직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 방송의 중립성이 없어 보였다. 앞으로는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언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2014 창업 프로젝트 천지창조}	8	예비 창업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면접과 심사를 거쳐 최종 창업자를 발굴해 내는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됐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들의 사적인 발언으로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방송처럼 느껴졌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류중희 대표가 참가팀의 발표를 듣고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도전자에게 취하는 태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심사결과로 우승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인 만큼 도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발언은 삼가 주기 바람에 교양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진중한 태도로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일요 진단]	6	‘세월호’ 사고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조원철 교수가 출연해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나가지 말라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발언하자 진행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피해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의미겠지만 마치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한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고 한 것 같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또한 고신대 손봉호 석좌교수는 “엄청난 비극이지만 이걸 기회로 이용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고를 기회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발언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KBS 뉴스 파행 사태	861	KBS 기자협회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KBS 뉴스9」등 뉴스가 기존 뉴스 시간보다 단축되거나 결방됐다. 보도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차질을 주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 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없다. KBS는 국민의 방송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방송을 정상화해 주기 바란다. 현재 사태로 인해 시청자들이 KBS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KBS 보도국장 발언 불만	273	최근 KBS 보도국장이 뉴스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수는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를 생각했을 때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상황을 외면한 발언으로 희생자 가족들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다. 공영방송 보도국장의 발언이라고 하니 더욱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처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뉴스를 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보도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바라하며 KBS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방송 재개 요청	49	세월호 사고 이후 「개그 콘서트」가 5주 연속 결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온 국민들을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한 사고였으며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직 웃고 즐기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온 국민이 슬픔에 취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그 콘서트」의 방송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
1TV [세월호 재난 특별기획]	39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 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1, 2부에 걸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사회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대형 참사를 키워왔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정부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적해야 한다. 2부에서는 희생자 가족들과 구조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패널들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탁상공론 같아 공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반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연결이 필요하고 미담위주의 방송보다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이나 실종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 단원과 학생 외에도 일반인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뮤직뱅크]	24	세월호 사고 이후 「뮤직뱅크」가 5주 연속 결방되고 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이 방송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발라드 가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하는 무대로 채워준다면 희생자 가족들과 시청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뮤직뱅크」의 방송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
예능 프로그램 편성 제언	8	‘세월호’ 사고 이후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온 국민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KBS의 최근 편성을 보면 28일(월)에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정규 방송됐고 29일(화)에는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이 방송됐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이다. 당분간이라도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재미와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 편성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KBS 방송 제작 거부 사태	7	KBS기자협회가 나홀 째 제작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PD협회도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번 사태는 전 보도국장을 통해 KBS 사장이 뉴스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KBS 보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와 방송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의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고 정부를 대변하기 위한 방송이라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KBS 사장은 외부의 압력을 받아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현 자리에서 사퇴하고 KBS직원들이 본인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TV [월화드라마 빅맨]	7	주인공 김지혁(강지환 분)이 괴한에게 납치돼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괴한의 칼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김지혁(강지환 분)의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 칼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손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모습과 괴한의 찌르려는 듯 한 몸짓에서 흥기로 칼이 사용됐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빅맨」은 15세 이상이면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판단력이 미비한 청소년들은 모방 심리로 연출한 장면을 따라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시청 가능 연령을 감안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연출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광장]	6	지리산 등산이나 탐방 길을 이용할 때는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샛길을 피해야 야생 곰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지리산을 탐방중인 시민과의 인터뷰 장면에서 ‘전남 남원시’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남원시’는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명에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2TV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4	주인공 장태정(박정철 분)은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과거를 숨긴 채 서지희(문보령 분)를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20일(화), 방송에서는 줄리아 킴(김서라 분)의 아들이 서지석(권율 분)임을 알게 된 장태정(박정철 분)이 서로 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인 나침반을 훔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줄리아 킴(김서라 분)에게 나침반을 보여주며 친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내용까지 그려졌다. 이처럼 방송 초반부터 계속 거짓말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극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짜증이 날 정도이다. 드라마의 종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따뜻하고 훈훈한 결말을 기대하는 시청자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 자극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따뜻하고 교훈적인 내용 위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KBS 파업 사태	399	1. KBS 파업으로 뉴스가 단축되거나 결방되고 있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장 퇴임을 요구하기 바람.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방송을 정상화 해 주기 바람. 2.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KBS 사태까지 일어나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말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람. 3. KBS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어려워 보임. 사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람. 4.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우리나라 언론의 바른길을 위한 파업을 지지함. 5. 청와대의 지시로 사장이 보도에 간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있 기전까지는 사장에게 공정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됨. 6. 방송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방송이 과다 편성됨. 교양이나 다큐 멘터리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람.
1TV [KBS 930뉴스]	130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로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11일(수) 「KBS 뉴스9」의 교회 강연 보도 이후 후보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질 논란이 빚어진 데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발언이 아닌 일부 발언만 보도하는 것은 실제 발언자의 의도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KBS는 일부 발언만 편집해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 공영방송 KBS는 정치·사회적 논란과 혼선을 일으킨데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체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앞으로 일부 영상만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홈페이지 가상 출구조사 유출	30	3일(화), KBS 홈페이지의 '6·4 전국지방동시선거 가상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됐다. 해당 자료에는 지역별로 당선자의 얼굴과 지지율까지 상세히 표기돼 있었다. 선거 출구조사는 투표일 당일에 실시하고 결과는 투표 시간 마감 후 공표되어야 한다.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유출 경로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KBS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및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19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교회에서 특강한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내용이었는데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사 인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올바른 역사인식, 국제사회의 법적상식 등을 갖추고 있는지 명확히 검증해서 지명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내정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성실히 보도해 준 KBS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특보]	18	21일(토) 오후 8시 15분경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에서 아군 초병에 의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KBS 뉴스특보」는 사건이 발생한지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방송이 됐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빠른 보도가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1TV [사랑은 노래를 타고]	9	'2014 전국지방동시선거' 개표방송으로 인해 6월 4일(수)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결방됐다. 선거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 편성도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앞으로는 편성이 변경되면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라며 정규 방송의 편성은 되도록 지켜주기 바란다.
2TV [추적 60분]	8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등록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열악한 수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실태를 보도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으로 리조트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각종 수익 사업에 이용하고 있었다. 고가의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뒤로 한 채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크다. 해당 학교의 사례는 사학비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후속조치나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타 대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개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실체를 파헤쳐 권력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1TV [KBS 뉴스9]	7	6월 6일(금)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그런데 「KBS 뉴스9」의 첫 소식은 사흘 연휴 시작 나들이객으로 도로 곳곳이 정체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층은 현충일을 휴일로 생각해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조기 게양, 아웅산 추모비 등 현충일에 맞는 내용도 보도되긴 했지만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되새길만한 심층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에는 온 국민이 그 의미를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의 비중을 높여 주기 바란다.
1TV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미리 보는 브라질 월드컵]	6	우리나라와 가나의 마지막 평가전 중계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경기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실제 경기는 1시간 뒤인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KBS 홈페이지 편성표를 보고 일찍 일어나서 중계방송을 기다렸는데 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 대부분의 경기가 브라질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대에 방송되는 만큼 정확한 경기 시작 시간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화면 왼쪽 상단에 실제 중계방송 되는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미주 이민 111주년 기념 LA코리아 페스티벌]	6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인 '미주이민 111주년 기념 LA코리아 페스티벌'이 방송됐다. 현지 교민과 한류 팬이 함께 즐길 수 있던 공연으로 기대를 하고 방송을 시청했다. 공연이 끝나면서 'LA 코리아 페스티벌 1부 끝'이라고 표기했다. 1부에 이어서 2부가 바로 방송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기다렸지만 뉴스가 방송됐다. 시청자상담실로 확인해보니 2부 공연은 다음 주인 22일(일)에 방송된다고 했다. '1부 끝'이라는 자막에 이어 '다음주에'라는 내용이 표기됐다면 본인처럼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막 표기에 좀 더 신중해 주기 바란다.

7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스크롤 자막 오류	19	「러브 인 아시아」 방송 중 '잠시 후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방송됩니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지난 6. 6.(금) 종영됐고 후속으로 「고양이는 있다」가 방송되고 있다. 이미 종영된 드라마가 다시 방송되는 것인지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광장]	14	동남아가 원산지인 농작물 '삼채'가 항암 효능이 뛰어나다는 정부기관의 연구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인도 삼채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삼채의 효능이 없다고 나온 뒤 주문 취소가 쇄도해 피해가 크다. 그동안 삼채의 우수한 효능은 KBS 뉴스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 번 방송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만 가지고 삼채가 효능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타기관의 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해 구체적으로 방송했어야 했다. 애써 공들여 키운 작물이 잡초 취급을 받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 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연구 자료를 근거해 삼채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추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중계방송 요청	12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77일 만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각종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한 중계방송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다.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인 만큼 관계기관의 사고 초기 대응과 구조작업의 부실을 추궁하고 선박안전점검의 허점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광장]	9	민어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본인은 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5월까지 민어의 어획량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민어가 잘 잡히지 않아 kg당 5~6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민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민어를 구매하고자 찾아온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확인하고는 뉴스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하는 소비자들 많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산시장 홈페이지만 확인해 봐도 현재의 수산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도돼 판매자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현재 시세나 현 어획량 등을 확인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생로병사의 비밀]	5	진행자가 "부실해진 하체 즉, 근육이 없는 얇은 다리는 관절염을 비롯해 중장년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이죠."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다리 굵기는 '얇다'가 아닌 '가늘다'라고 표현해야 맞다. 일상에서 혼동할 수 있는 단어들은 더욱 주의하여 바른 표현을 해 주기 바란다.
1TV [KBS 걸작선 수상한 삼형제]	4	인기리에 방송됐던 드라마를 재방송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최근 결방과 편성 변경으로 인해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웠다.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이나 편성 변경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여유만만]	4	현미, 정훈희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을 흔드는 바람의 정체'를 주제로 세계 외도를 2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미는 자신의 남편 故 이봉조를 연에게 최고 바람둥이라고 소개하며 "나는 참 지혜롭게 산거 같다. 웬만한 바람은 눈감아 줬다.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이 편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전한 공영방송에서 불륜을 다루고 불륜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유명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만 다룬 것은 시청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황혼의 바람, 이 장소를 조심하라?'는 주제에서는 성인업소 및 등산, 동창회 등의 장소가 거론됐다. 그러나 건전한 운동인 등산을 불륜의 장소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산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 모두가 오해의 대상이 돼 가정 불화가 조장될까 우려된다. 성인방송에서 다뤄질 법한 불륜, 외도, 여성의 피해를 나열하는 의미 없는 개인사 들추기는 공영방송의 아침방송 소재로 적절하지 않다.
1R [23시뉴스]	4	라디오는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으로만 방송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어 진행자의 발음과 음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1일(월) 뉴스 진행자의 경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톤도 낮아 청취하기 불편했다. 뉴스를 청취하는 내내 방송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하기까지 했다. 앞으로는 정확한 발음과 안정된 음성으로 뉴스를 진행해 보도의 전달력을 높여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스포츠)]	4	프로야구 삼성과 NC전에서 심판 합의판정이 큰 위력을 발휘해 두 팀 모두 합의판정으로 결과를 바꿨다는 내용을 전하며 취재기자를 연결했다. 그런데 잡음이 너무 심해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가 오디오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전한 뒤 다시 취재기자를 연결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잡음이 발생해 보도가 중단됐다. 그런데 별도의 양해 멘트도 없이 방송이 종료돼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메인 진행자는 방송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기 바란다.
1TV [취재파일 K]	4	배달 청소년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진행자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리켜 '밑바닥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해 시청하기 불편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처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앞으로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또한 배달 직원들의 피해 사례 위주로 방송되다보니 모든 업체가 배달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앞으로 일부 업체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 관련업체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8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뮤직뱅크]	31	지난 29일(화), 그룹 JYJ가 3년 만에 정규 2집 '저스트 어스(JUST US)'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백 시트(BACK SEAT)'는 발매와 함께 각종 음원차트 실시간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2년 소속사와의 분쟁이 해결돼 현재는 지상파에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지상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룹 JYJ의 출연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2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28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 방안까지 찾아볼 수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난 1일(금) 방송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돼 무척 아쉽다. 부부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3」를 제작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조선 총잡이]	14	본 방송 시간이 평일 저녁시간대라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16회까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내용이 그 주 토요일에 재방송이 됐다. 그런데 8월 넷째 주 편성표를 확인해보니 17회와 18회는 토요일에 재방송이 되지 않고 일요일에만 18회가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평일 본 방송 시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존처럼 주말에 2회를 모두 재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연애의 발견]	13	본인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해당 기관에 토끼 학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와 전화한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 「연애의 발견」에서 토끼를 씻기는 모습과 소파에 내던지듯 토끼를 내려놓는 장면이 방송됐다고 했다. 방송을 확인해보니 주인공 한여름(정유미 분)과 강태하(에릭 분)가 토끼를 키우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탁자와 소파에 토끼를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과 샤워기를 이용해 토끼를 씻기는 장면도 나왔다. 토끼는 그루밍을 통해 스스로 몸을 씻고 작은 스트레스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동물이다.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사전 지식을 확인한 후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7	아들 염치웅(현우 분)이 사법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염병수(이재용 분)가 분노하며 아들을 각목으로 때리고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채 감금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자녀를 각목으로 때리는 것은 훈육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가족에게 각목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녀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용인되던 유교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성장한 부모 세대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듯이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이라며 체벌이나 손찌검을 가하는 일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은 자녀들의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기도 한다. 또한 폭행을 당한 자녀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우울증이나 성격장애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족드라마인 만큼 부모는 자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며 폭력적인 장면은 연출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9]	5	최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가 하면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가래침을 활아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다. 지난 6일(수) 「KBS 뉴스9」 '윤 일병 뇌·장기 손상...구타 살인 가능성'에서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 결과를 보도했다.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들고 심각한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군이 발표한 '질식사'가 아니라 '심한 구타에 따른 쇼크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군대문화에 심한 공분을 느꼈으며 윤 일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엄청난 폭행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아팠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병사들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군 뿐 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군의 책임을 부각시킨다면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군 지휘관의 책임 회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잔혹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보도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1TV [KBS 파노라마]	5	친환경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친환경 농가의 농약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방송을 했다. 1부에서는 '가짜 인증의 덫'을 주제로 친환경 인증이 조작되는 허술한 인증 과정에 대해 방송됐다. 2부에서는 '농약의 유혹'을 주제로 현재 판매중인 친환경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본인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건강에 해로운 제초제나 토양 살충제, 성장 촉진제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불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돼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불신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방송에서 친환경에 대한 고발사례 뿐만 아니라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1TV [KBS 뉴스7]	3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자료화면이 나왔다. 그런데 기자의 발언과 자료화면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각 당의 선거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다. 선거가 끝난 후인데 각 당의 전략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나와 의아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진행자의 사과가 없었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3	공무원·군인 연금의 실태와 대책을 보도하며 기자가 "부사관의 꽃, 준위의 연금도 한 달 평균 270만 원이 넘는데요."라고 발언했다. 군사 계급은 병사,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 나뉘며 준위는 부사관이 아닌 준사관에 속한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급을 확인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3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나흘 앞두고 전국의 성당들은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교동성당 주임신부의 인터뷰 중 '교황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가톨릭(Catholic)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라고 호칭하며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앞으로는 해당 종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중계종목 선정에 대한 불만	112	23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남자 배드민턴 단체 금메달 결정전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라이벌인 중국과의 결승전이기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상파 3사 모두 배드민턴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다. 본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연령대인 중·장년층 이상은 경기를 볼 수 없어 답답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열린 경기를 외국 방송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사간 적절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다양한 경기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여기는 인천 - 남자 축구 예선 대한민국 : 사우디]	38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예선전을 시청하던 중 화면보다 해설이 먼저 나오는 현상이 발생됐다. 전반전에서 김승대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에도 화면보다 해설이 빨라 긴장감이 떨어졌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만큼 방송사고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29	장가간 아들의 집을 맘대로 가도 되는지 고부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어머니, 며느리, 시아버지, 아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충과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여성 출연자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며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고 했다. 또한 출연자 석중일은 본인의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잔소리밖에 안한다며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부정적인 존재로 단정 지었다. 본인은 아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송이 오히려 고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에는 막무가내로 아들네 집에 가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부모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를 어렵게 생각하며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시부모들이 많다.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가 시청하기 불쾌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끼어드는 등 산만한 토론이 이어졌다. 각자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의를 갖춘 뒤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비인기 종목 중계요청	24	20일(토), '우슈'의 이하성 선수가 남자 장권 부문에서 국가대표팀 첫 금메달을 획득하고 마장마술 단체전에서도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줬다. 그런데 금메달 획득 소식만 들려올 뿐 지상파 방송 어디에서도 실시간 경기 장면을 볼 수 없어 무척 아쉬웠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 대한 생중계 일정을 살펴봤지만 인기 종목, 주요 경기 위주로만 편성돼 있어 비인기 종목을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KBS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주관 방송사인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중계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1TV [2014 인천아시안게임]	22	24일(수), 저녁 시간대 1, 2TV 양쪽 채널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중계해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본인처럼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은 시청권을 박탈당한 기분일 것이다. 특히 야구의 경우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방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타방송사와 동일한 경기를 중계하는 것은 피해주기 바람이며 KBS는 1, 2TV 2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정규 프로그램 결방을 삼가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가족끼리 왜 이래]	19	「여기는 인천 -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 : 중국)」방송 관계로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가 결방되고 「연예가 중계」가 방송됐다.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방 소식을 접하니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드라마는 고정 시청 층을 확보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시청자들의 이러한 시청 성향을 감안해 가급적 드라마 결방은 삼가 주기 바란다.
2TV [여기는 인천 -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 : 중국)]	8	이종범 코치가 해설위원으로 출연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야구 준결승전 경기를 중계했다. 그런데 단조로운 어조였다가 말수는 지나치게 많아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야구 경기는 상대팀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간단명료한 해설로 경기의 흐름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좀 더 경험이 많은 해설위원을 위촉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6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진단해 보고 금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실효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 반영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참여 전화가 없어지고 방청객들의 의견만 듣고 진행하고 있어 아쉽다. '담뱃값 인상'과 같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 참여 전화를 개설해 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토론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스포츠)]	5	우리나라 선수들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화면 하단의 스포츠 단신 뉴스 자막으로 우리나라의 메달 집계 현황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자랑스러운 선수단의 승전보를 널리 알리고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은 당일 날 치러진 경기 결과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 일정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KBS 뉴스9(스포츠)」 방송 중 당일 날 치러진 경기 결과와 내일 예정된 주요 경기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시사진단]	4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유가족과 술마신 게 죄가 될 수가 없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마치 폭행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 불쾌했다. 비록 유가족과 술을 마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반말과 폭언을 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지 못한 출연자로 인해 토론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방송된 것 같아 아쉽다. 앞으로는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10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해피 선데이]	38	19일(일)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 오프 1차전' 경기 중계로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결방됐다. 홈페이지에 야구 중계 시 18시 15분부터 「해피 선데이」가 방송된다고 돼있어 기다렸지만 야구 중계가 끝난 뒤 「대국민 토크쇼 안녕 하세요 스페셜」이 방송되고 이후 「해피 선데이」 '1박 2일'이 방송됐다. 자막으로 「해피 선데이」의 편성 시간 변경에 대해 고지했지만 정작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결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방송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는 1, 2부로 나눠 다른 코너를 방송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23	3일(금), '단기 4346주년 개천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2014년의 개천절은 단기로는 서력 기원전 2333년을 더해 계산하면 '단기 4347년'이 된다. '주년'의 경우 한 주기가 돌아오는 1년의 개념으로 '4346주년'이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다른 '단기'와 '주기'를 함께 사용해 헷갈렸다.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앞으로는 '단기'와 '주년'의 표현 중 하나의 단어만 사용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22	18일(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로 인해 「KBS 뉴스9」가 기존 편성보다 늦은 21시 11분경에 시작했다. 자막으로 뉴스가 늦어진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하루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는 「KBS 뉴스9」의 편성이 늦어져 불편했다. 앞으로는 편성 시간에 변경이 없길 바란다.
이인호 이사장 역사관 논란	16	지난 22일(수), 국정감사에서는 KBS 이사장이 "백범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사장의 뼈뿔어진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조국 독립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역사 왜곡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그는 "상해 임시 정부는 임시 정부로도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독립국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편협한 역사관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KBS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사장의 자질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1TV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8	2일(목),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이 결방되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방송됐다.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기다렸는데 결방 사실을 알고 나니 실망감이 컸다. 당일 날 편성이 변경된 것이라면 사전에 여러 차례 자막으로 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편성변경 시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6	퇴직 공무원의 21%가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 퇴직 공무원의 62%는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화면 하단의 단신뉴스 자막에는 '공무원 연금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전체 62% 차지'라고 나왔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막만 본다면 퇴직 공무원 62%가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최근 공무원 연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표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중계방송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4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방송됐다. 기념식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계룡대'에서 진행됐으나 자막으로 '계룡대'라고 표기했다. 또한 '건국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군대를 처음으로 세웠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건군'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막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4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된 분위기를 전하며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가 상대방의 말을 끊고 심지어 반말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내어 합의를 도출하거나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 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4	남침용 땅굴 논란: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남침용 장거리 땅굴'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남침용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공군 예비역 장군과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국방부가 땅굴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땅굴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땅굴 존재 여부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3	국회의원 세비 인상: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이는 현재보다 5백여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1인당 국민 소득에 5.2배에 달하며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 짓고 9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150여 일간 국회파행이 지속됐었다. 본회의를 비롯해 국회의 정상가동은 정당과 국회의원 존재하는 이유이자 해야 할 일이다. 본인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수만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보수 일괄 인상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세비 인상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세금,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는 날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또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11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KBS 홈페이지 이용 불편	20	23(일),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보기(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KBS미디어(1644-8560)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연결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했다. 방송은 전파 뿐 아니라 웹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및 사후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시청자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 운영시간을 늘려 주기 바란다.
2TV [아이언 맨]	4	「2014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 경기가 끝난 후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방송됐다. 해당 시간에는 수목 드라마 「아이언 맨」이 방송되는 시간이지만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편성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하이라이트와 감독, 선수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지 않았다면 드라마를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나 선수 인터뷰는 「스포츠 하이라이트」에서 전해줘도 충분할 것이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규 프로그램 결방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2TV [가족끼리 왜 이래]	3	오후 7시 36분경 「해피 선데이」가 끝난 후 수십 개의 광고와 예고, 캠페인이 차례로 방송됐다. 편성표상 주말 연속극 방송시간은 오후 7시 55분이다. 그런데 광고로 인해 실제 주말 연속극이 시작된 시간은 오후 8시가 넘어서였다. 2TV 채널 특성 상 광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전후 광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 약속한 편성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3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엉뚱한 행동으로 시청하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방송을 보면 엄마들의 출연이 잦아지고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아빠들이 육아에 도전한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래 기획의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엄마들의 출연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산 너머 남촌에는2]	3	농촌의 풍경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정감 있게 그려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 12월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상파에서 유일한 농촌 드라마로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시골의 소박함과 진솔한 모습을 잘 담아낸 드라마이다. 본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드라마를 볼 때마다 고향이 생각나 어릴 적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본인 외에도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랜 기간 내실을 다져온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2」 폐지 철회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1TV [목포방송국 개국 72주년 기념 특집 목포가요축제]	2	KBS 목포방송국 개국 72주년을 맞아 인기 가수들의 축하무대로 꾸며졌다. 목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목포시립무용단의 '목포 학춤'을 시작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트로트 음악을 들려줘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만 방송이 자정 이후에 종료돼 끝까지 시청하지 못했다. 흥겨운 축제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콘서트 7080]	2	지난 10월부터 방송 시작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시청하지 못하거나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간 이후 방송순서' 자막으로 시간을 고지해 주기도 하지만 자막을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2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코너는 일반인과 연예인이 함께 출연하고 있다. 개그맨 최형만은 일반인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재치 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프로그램에 활력을 준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토)부터 개그맨 최형만이 출연하지 않아 무척 섭섭하다. 일반인 출연자를 배려하고 시청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개그맨 최형만을 고정으로 출연시켜 주기 바란다.
1TV [ITU전권회의 특집 스마트 특쇼 나를 따르라]	2	가정에서 소변볼 때 남자들이 앉아서 용변을 볼지 그대로 서서 볼지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런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서서 싸요?", "앉아서 싸" 등 '싸다'라는 표현을 자주해 시청하기 불편했다. '싸다'는 용변을 보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앞으로는 방송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9]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대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격을 공시하고 통일해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단순히 매출 감소가 아닌 매장 존폐여부를 논의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휴대전화 판매 가격이 상향돼 소비자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단통법'이 계속 지속돼야 할지 의문이다. 소비자와 판매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단통법의 잘못된 구조와 변경 방안에 대해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91	평일 저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본 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토요일 낮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다가오는 주말(13일) 편성표를 보니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월화 드라마 「힐러」의 재방송이 편성되어 있었다. 드라마는 극의 전개 과정이 중요한데 더 이상 재방송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아쉽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인처럼 연령이 많은 사람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드라마가 종영되기까지 기존대로 주말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영화극장]	37	국내 영화를 비롯해 해외 명작을 우리말 더빙으로 시청할 수 있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영화극장」이 45년 만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 층이 현저히 줄어 외국 영화를 구입해 방영하기 보다는 내부 콘텐츠 개발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을 가지 못하거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소수계층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것 또한 공익적 기능일 것이다. 「영화극장」 폐지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DMB 오디오 품질 제언	36	DMB를 통해 「콘서트 7080」을 시청했다. 그런데 배경음악이나 반주 소리는 잘 들리는 반면 진행자와 가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시청하기 불편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더불어 DMB 보급도 확산되고 있어 이동 중에도 DMB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DMB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들의 욕구에 맞춘 특화된 DM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TV [시사진단]	1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확인하는 결정이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중복세력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을 다했다며 두둔하기도 했다. 이미 정당 해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대치하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토론 내내 감정을 내세우며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듯이 발언해 중복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부정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출연자 섭외 시 사회 이념적 편향 성향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방송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강연 100°C]	7	'약자를 위하여'란 주제로 방송인 홍석천과 범죄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출연했다. 성소수자임을 밝힘으로서 그가 겪었을 냉대와 시련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오랜 기간 사회의 냉대를 견디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연 100°C」는 그동안 유명 인사가 아닌 일반인이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기존처럼 일반인 출연자들을 적극 섭외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4 트로트 대축제	5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2014 트로트 대축제」에 방청신청을 했다. 당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12월 11일(목) 오후 2시에 당첨확인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일 날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 시청자상담실로 문의를 했다. 공지사항에는 16일(화) 오후 2시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4 트로트 대축제」로 분류되어 있는 화면에는 11일(목) 오후 2시라고 기재되어 있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으며 바로 홈페이지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수정된 내용도 확인을 했다. 그런데 16일(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당첨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트로트 대축제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방청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차례 공지된 내용과 달리 진행된다면 시청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4	부표 위에서 버블슈트를 착용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경기를 진행했다. 그런데 부표 위에 노란색 마름모 모양 위로 붉은 원이 그려져 일장기를 연상시켰다. 일장기와는 다른 노란색으로 바탕이 이뤄졌지만 붉은 원모양으로 이뤄진 세트에 신경이 쓰여 방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작은 소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신경 써 제작해 주기 바란다.
우리말 사용요청	4	최근 정윤희 씨가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찌라시(지라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정윤희 문건에 대해 이는 "찌라시 수준"이라고 반박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찌라시(散 ちらし)'는 일본어로 우리말인 '선전지'나 '날장 광고'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본식 표현을 지양해 주기 바라며 사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순화어도 함께 언급해 주기 바란다.
1TV [당신만이 내사랑]	4	이지건(성혁 분)과 송도원(한채아 분)이 첫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역새밭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갈대'라고 표현해 의아했다. 역새는 산이나 들에 자라며 갈대는 호수나 습지와 같은 늪지 주변에 있는 풀로 서식조건과 식물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역새와 갈대는 모양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송을 통해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1TV [KBS 뉴스9]	4	화면 하단에 '토틀넘 이적료 350원에 손흥민 이적 추진(영국신문)'이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틀넘에서 약 350억 원의 이적료를 내세워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350억 원을 350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철저한 검수를 통해 자막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KBS 시청자 상담실은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최우선적으로 시청자의 권익과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점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 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 (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K플레이어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 강령, KBS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의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2014. 3. 4. [화]

KBS  시청자상담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4)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4. 2. 28.(금) 06:00 ~ 2014. 3. 4.(화) 06:00
- 상담건수: 3,477건 (의견 건수: 15 / 다수: 2)
- 주요 의견: 1TV 「공사창립 41주년 특집 K-POP, 국악에게 길을 묻다」 - 방송 호평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공사창립 41주년 특집 K-POP, 국악에게 길을 묻다」

방송일시 : 2014. 3. 2.(일) 1TV (17:40-19:00)

- 상담의견 : 방송 호평

'K-POP과 국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중음악 가수와 국악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보여줬다. 대중음악과 국악의 본연의 색이 그대로 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국악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고 가볍게 생각해 오던 대중음악은 깊이와 감동을 더했다. 국악인, 트로트 가수, 아이돌 가수 등이 출연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주말 저녁을 함께 즐겼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주기 바란다.

※ 참고: 10p 본문 참조.

※ 예능국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3. 4. 07:10 문자 통보)
예능국 CP3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3. 4. 07:10 문자 통보)

III. 입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3,47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계
3,394	82	-	1	3,47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1,155	928	84	3	-	1,307	3,47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53	3,424	-	3,47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2,170	266	366	675	3,477

시청자 의견 (15)	문 의
【편 성】 (3건) ○ 「열린채널」 외 - 재방송 요청 등 【보 도】 (2건) ○ 「KBS 뉴스2」 외 - 방송 호평 등 【스포츠】 (7건) ○ 「KBS 뉴스9」 외 - 진행자 호평 등 【시사·교양】 (6건) ○ 「생생 정보통」 외 - 방송정보 오등록 피해 등 【연예·오락】 (1건) ○ 「공산당 10주년 특집 K-POP, 국악에게 길을 묻다」 - 방송 호평 【드라마】 (4건) ○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 방송 음향 및 자막 표기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동원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문의 227건 ○ 「생생 정보통」 - '계갈락' 연락처 문의 166건 ○ 「VJ특공대」 - '이레' 연락처 문의 112건 ○ 「생생 정보통 스페셜」 - '탐라정' 연락처 문의 107건 ○ 「생생 정보통 플러스」 - '봉담 칼국수' 연락처 문의 76건 외 1,459건 【기 술】 ○ 「수신료 및 난시청」 문의 204건 ○ 「디지털전환」 문의 38건 외 24건 【경 영】 ○ 「전화교관」 문의 153건 ○ 「홈페이지」 문의 134건 ○ 「프로그램구입」 문의 31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27건 ○ 「견학」 문의 15건 외 6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외 674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요청	○ 「열린채널」 - 1TV (금) (13:00-13:30) -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지난 28일 (금) 방송된 '비정규직이 있는 풍경'은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근무조건을 실감나게 담아내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일 낮 시간대에 방송되어 정작 직장인들은 시청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 시간대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한OO
편성 요청	○ 「명화극장」 '애스크 더 더스트(Ask the dust)' - 1TV (금) (00:10-02:15) - 가난한 멕시코 여성인 주인공 카밀라(셀마 헤이엑 분)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인 아투로 밴디니(콜린 파렐 분)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이다. 이민자들의 인종차별과 안타까운 사랑이야기가 더해져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난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명화극장」에서 우리말 더빙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조OO ※ 참고: 애스크 더 더스트 (Ask the dust) - 감독: 로버트 타운 - 주연: 콜린 파렐, 셀마 헤이엑, 에일린 앳킨스, 디온 바스코 - 제작국/ 제작년도: 미국/ 2006

의견	세부내용
편성 불만	○ 「해피 선데이」 - 2TV (일) (16:55-19:55) - KBS 홈페이지 편성표에는 「해피 선데이」 방송 시작시간이 16시 55분으로 편성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3주간 프로그램이 방송된 시간은 공지된 시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편성시간에 맞춰 채널을 고정했지만 이미 방송이 시작된 후였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인데 사전 공지도 없이 방송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편성표에 맞춰 방송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송 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조OO ※ 참고: <2, 16.(일) ~ 3, 2.(일) 편성표와 실제 방송 시간> - 2, 16.(일) (16:40~) 편성됐으나 (16:15~) 방송 시작됨. - 2, 23.(일) (16:55~) 편성됐으나 (16:30~) 방송 시작됨. - 3, 2.(일) (16:55~) 편성됐으나 (16:20~) 방송 시작됨. [KBS 홈페이지 편성표 / 편성제작정보시스템]
[보 도]	
방송 호평	○ 「KBS 뉴스12」 - ‘수십억 들인 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 무용지물’ - 2014. 2. 27.(목) 1TV (12:00-13:00) -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고가의 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본인은 고가의 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 시공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다. 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은 설치 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또한 장비에 결함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아파트 신축 시 고가의 쓰레기 자동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은 분양 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꼼수로 보인다. 이번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밝혀지게 된 것 같아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의견제시자 : 김OO ※ 참고: 다시보기 1분 6초경 ‘자동처리시스템을 도입한 또 다른 고품 아파트, 분양 당시 쓰레기차가 필요 없는 친환경 아파트라고 열을 올렸지만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만구(아파트주민): “참 명품아파트로 알고 입주했는데, 높은 분양가를 주고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를 속이고서...” 최근 신도시 등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고가의 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 하지만 부실한 기능 때문에 제 값 못하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라고 보도함.

의견	세부내용
보도 요청	○ 「KBS 뉴스9」 ‘데스크 분석 - 미세먼지 근본 대책은?’ - 2014. 2. 26.(수) 1TV (21:00-22:00)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기예보를 통해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것 같아 아쉽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와 황사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손OO ※ 참고: 다시보기 27초경 “서울시가 부랴부랴 도로의 물청소 횟수를 대폭 늘리고, 차량운행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략) 그러기 위해선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생량과 한반도 유입량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서둘러야 합니다. (생략)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물청소를 더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보도함.
【 스포츠 】	
자료화면 제언	○ 「KBS 뉴스9(스포츠)」 - ‘인권 무시 폭언·구타·성희롱 난무 한국스포츠’ - 2014. 2. 27.(목) 1TV (21:00-22:00) - 체육계의 비정상 관행을 소개하면서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의 유재학 감독이 소속팀 합지훈 선수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게 한 사건을 보도했다. 작전타임 도중 감독이 선수에게 폭언을 하며 선수의 입에 억지로 테이프를 붙이게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왔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스포츠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해당 선수가 보도를 접하고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며 상처받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인격 모독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 참고: - 실시간 방송시간 21시 35분 38초경 모 대학교 운동부 감독이 여자 선수들을 구타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올 때에는 화면효과가 처리되었으나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의 유재학 감독이 소속팀 합지훈 선수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게 한 사건은 화면효과 처리 없이 보도됨. - <부서 답변> 앞전에 구타사건은 대학교 운동부로서 아마추어 선수들임, 울산 모비스 피버스는 프로구단으로서 당시 경기가 생중계로 중계가 된 바 있음, 중계 영상을 받은 것으로 별도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음. [스포츠취재부 / 김도환 기자]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 「6시 내고향」 「경북 울진 - 인생은 즐거워 실버 무용단」 - 2014. 2. 27.(목) 1TV (18:00-18:55) - 경상북도 울진의 실버 무용단 어르신들이 화관무, 부채춤, 아리랑 탈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춤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일상을 소개했다. 실버 무용단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기 적으로 무료 공연도 열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 의기소침해 지기도 한다. 주시청자가 장·노년층인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자주 소개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 호평	○ 「한국인의 밥상」 - 1TV (목) (19:30-20:25) - 우리나라 곳곳의 명소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탤런트 최불암의 매끄러운 진행이 잘 어우러져 즐겨 시청한다.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모님 세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구수한 옛날이야기로 방송 내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오랫동안 방송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서OO
방송 음량 제언	○ 「KBS 파노라마」 - 「3.1절 특집 발굴추적 독도 폭격, 배후에 일본이 있었다」 - 2014. 2. 28.(금) 1TV (22:00-22:50) -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독도를 빼앗기 위해 저질렀던 만행과 독도 폭격에 대해 방송됐다.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내레이션과 전문가의 인터뷰로 꾸며졌는데 배경음악 음량이 지나치게 크게 들려 멘트가 잘 들리지 않았다. 자막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김OO ※ 참고: 실시간 방송시간 22시 1분 37초경, 22시 9분 30초경 배경음악 음량이 다소 크게 들려 내레이션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편성제작정보시스템]

의견	세부내용
홈페이지 예고편 요청	○ 「여유만만」 - 2TV (월-금) (09:40-10:50)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시간이 바뀐 아침 시간이 다 보니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농친 방송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꼭 보고 싶었던 방송인 경우가 많아 아쉽다. 방송 예고편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해 준다면 본인처럼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시청자가 방송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고편을 공지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마OO
방송정보 오등록 피해	○ 「생생 정보통」 ‘대결 맞추’ - 2014. 2. 27.(목) 2TV (18:30-19:50) - 2월 27일(목) 오후 7시가 넘자 갑자기 본인의 집 전화로 ‘오형제 손짜장마을’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확인해 보니 「생생 정보통」 홈페이지에 본인의 집 전화번호가 음식점 연락처로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다음날 오전까지도 문의전화가 걸려와 아예 수화기를 내려둔 상태이다. 사생활 침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시청자상담실에 전화해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시청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앞으로는 방송과 무관한 시청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박OO ※ 참고: - 프로그램 홈페이지 취재처 정보 게시판에 ‘오형제 손짜장마을 (02-488-3738)’로 등록됨. 민원인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함. - 외주제작사 미디어화 유인철 PD에게 전달해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함.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기로 함. - <부서 답변> 담당 외주제작사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는 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협력제작국 / 김일환 PD]

의견	세부내용
[연예 · 오락]	
방송 호평	○ 「공사창립 41주년 특집 K-POP, 국악에게 길을 묻다」 - 2014. 3. 2.(일) 1TV (17:40-19:00) - ‘K-POP과 국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중음악 가수와 국악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보여줬다. 대중음악과 국악의 본연의 색이 그대로 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국악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고 가볍게 생각해 오던 대중음악은 깊이와 감동을 더했다. 국악인, 트로트 가수, 아이돌 가수 등이 출연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주말 저녁을 함께 즐겼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고OO ※ 참고: 진행 - 가수 배철수, 국악인 송소희 〈출연자 및 함께 부른 선곡〉 - 가수 주현미, 국악인 이호연: ‘민요 창부타령’, ‘작사랑’ - 가수 바비킴, 부가킹즈, 국악그룹 소리아밴드: ‘민요 뱃노래’ - 가수 마야, 국악인 박종호: ‘봄 여름 가을 겨울’ - 가수 B1A4, 국악인 송소희: ‘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 ‘나성에 가면’ - 가수 B.A.P(국악 전공 멤버 힘찬): ‘No Mercy’ - 가수 소냐, 국악인 최진숙: ‘민요 꽃타령’ - 가수 최백호, 국악인 안숙선: ‘아리랑, 삼주아리랑’, 단가 사월가 - 전 출연자: ‘아름다운 강산’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방송 음량 및 자막 표기 제언	○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4명) - 2014. 3. 2.(일) 1TV (21:40-22:30) -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극으로 재구성한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 중 배경음악 음량이 너무 크게 들려 연기자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드라마는 흐름이 끊기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송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또한 등장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표기되는데 표기 시간이 짧아 다 읽기도 전에 지나가버린다. 주 시청자가 중·장년층임을 고려해 자막 표기 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 의견제시자 : 정OO ※ 참고: - 실시간 방송시간 21시 42분 11초, 21시 45분 10초, 22시 21분 30초경 배경음악 음량이 다소 크게 들림, 21시 40분 27초경부터 등장인물 '이인임(영문하부사)'이 약 5초간 자막으로 표기됨. - 22시 27분 56초경 '승암 이인임(?~1388) 고려 말 문신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해 1등공신이 됨, 수문하시중, 좌시중 등 역임'이 약 6초간 자막으로 표기됨. [편성제작정보시스템] - 2월 7일(금) 시청자상담실 일일보고서 동일의견 게재됨.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204 건 (방송기술 관련 12p 참고)

3. 시청자상담 통계(2014.2.28.~3.4.)

(단위: 건)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103			2	105	
보도	265			1	266	
스포츠	7			5	12	
교양	1,230	1		22	1,253	
예능	307			17	324	
드라마	119			7	126	
라디오	80			4	84	
인터넷 방송	-			-	0	
계	2,111	1	0	58	2,170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204				204	
수신기술	16				16	
주파수	5				5	
디지털전환	38				38	
DMB	3				3	
계	266	0	0	0	266	

○ 경영

전화교환	153				153	
사업 및 행사	25			2	27	
견학	15				15	
주차	6				6	
프로그램구입	29			2	31	
홈페이지	134				134	
계	362	0	0	4	366	

○ 기타

기타	655			20	675	
계	655	0	0	20	675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KBS 뉴스9」

- 18일(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로 인해「KBS 뉴스9」가 기존 편성보다 늦은 21시 11분경에 시작했다. 자막으로 뉴스가 늦어진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하루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는「KBS 뉴스9」의 편성이 늦어져 불편했다. KBS를 대표하는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는 편성 시간에 변경이 없길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2014 인천아시안게임」

- 24일(수), 저녁 시간대 1, 2TV 양쪽 채널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중계해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본인처럼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은 시청권을 박탈당한 기분일 것이다. 특히 야구의 경우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방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일한 경기를 타방송사와 동시에 중계하는 것은 전파 낭비처럼 느껴진다. 타방송사와 동일한 경기를 중계하는 것은 피해주기 바람 KBS는 1, 2TV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규 프로그램 결방을 삼가 주기 바란다. <9월 26일 보고서>

○ 1TV 「명화극장」

- 국내 영화를 비롯해 해외 명작을 우리말 더빙으로 시청할 수 있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명화극장」이 45년 만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 층이 현저히 줄어 외국 영화를 구입해 방영하기 보다는 내부 콘텐츠 개발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외계층을 배려해야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을 가지 못하거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소수계층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것 또한 공익적 기능일 것이다. 「명화극장」 폐지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12월 17일 보고서>

○ 1TV 「산 너머 남촌에는 2」

-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한 회도 빠짐없이 시청했었다. 수수하고 정감어린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농촌 드라마였는데 더 이상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매우 아쉽다. 화려한 볼거리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 드라마는 많지만 실생활을 통해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드라마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드라마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영성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농촌드라마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드라마 제작을 고려해 주기 바람 건전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세월호 사고 이후 「개그 콘서트」가 5주 연속 결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온 국민들을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한 사고였으며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직 웃고 즐기기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그 콘서트」의 방송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 「여기는 인천 -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 : 중국)」 방송 관계로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가 결방되고 「연예가 중계」가 방송됐다.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방 소식을 접하니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드라마는 고정 시청 층을 확보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시청자들의 이러한 시청 성향을 감안해 가급적 드라마 결방은 삼가 주기 바란다. <9월 29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

- 19일(일) '2014 프로야구 준플레이 오프 1차전' 경기 중계로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결방됐다. 홈페이지에 야구 중계 시 18시 15분부터 「해피 선데이」가 방송된다고 돼있어 기다렸지만 야구 중계가 끝난 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이 방송되고 이후 「해피 선데이」 '1박 2일'이 방송됐다. 자막으로 「해피 선데이」의 편성 시간 변경에 대해 고지했지만 정작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결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방송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는 1, 2부로 나눠 다른 코너를 방송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2TV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 평일 저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본 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토요일 낮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다가오는 주말(13일) 편성표를 보니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월화 드라마 「힐러」의 재방송이 편성되어 있었다. 드라마는 극의 전개과정이 중요한데 더 이상 재방송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아쉽다. 드라마가 종영되기까지 기존대로 주말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9일 보고서>

○ 정규 방송 편성 요청

- 방송 3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 16일(수)부터 주말인 20일(일)까지도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하루 종일 뉴스 특보를 방송하고 있다. 실시간 구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불신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으며 뉴스특보 마저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KBS는 타방송사와 달리 1, 2TV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TV에서는 오락과 예능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중계요청

-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77일 만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각종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한 중계방송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다.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인 만큼 관계기관의 사고 초기 대응과 구조작업의 부실을 추궁하고 선박안전점검의 허점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2. 제작요청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호르몬제 멜라토닌은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제로 지정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 인터넷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약국이 아닌 온라인 구매라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멜라토닌을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이유와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시청자다.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는 인권유린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라남도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도 있었다. 지방 변두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도덕한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처벌 기준에 대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방송했다. 본인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로서 매우 관심 있게 시청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고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중국 해커들이 빼낸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문제의 심각성만 진단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예방법 등은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모색해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추가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프로그램 제작 요청

- 재난사고 대처법: 최근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전라남도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 사고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숙한 초기대응이었다.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상황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긴급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월 30일 보고서>

○ 프로그램 제작 요청

- 농촌생활: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일손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농촌을 소재로 한 전원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2」가 방송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농촌에 찾아가 농사를 짓고 농민들과 정감 있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농촌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과 우리 농산물의 참된 가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농촌의 사계절 정경을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4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 드라마 「빠꾸기 동지」

- 이화영(이채영 분)이 자신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정진우(정지훈 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강제로 빼앗아 가위로 난도질하며 아이를 세게 밀쳐내는 장면에 이어 놀란 아이가 딸 꼭질을 하며 서서 오줌을 싸는 모습까지 방송됐다. 아무리 드라마일지라도 지나친 아동 학대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역배우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시청자들의 정서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자극적인 연출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라마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며 중견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와 김민교(남순 역)의 필리핀 혼혈인 연기를 통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극중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오말수(김해숙 분)와 이병태(정한용 분)가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단어 선택에 좀 더 신중해 주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

- 상남(한주완 분)의 생모 만정(이상숙 분)이 며느리 광박(이윤지 분)에게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은 안 해 오고 빈 몸뚱이로 왔다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만정(이상숙 분)이 며느리의 눈을 피해 신혼 방을 뒤지고 도둑질하는 장면은 부도덕해 보여 자녀들과 시청하기 불쾌했다. 지나치게 부도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 전개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

- 최근 내용에는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가 많은데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당시의 애환을 담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2TV 「TV소설 순금의 땅」

- 독사(박성일 분)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기 위해 정순금(강예슬 분)과 지연희(김도연 분)를 감금하고 협박을 가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어서 정순금(강예슬 분)을 인질로 삼고 강우창(강은탁 분)과 윤정수(이병훈 분)에게 극단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세운당 마님(정애리 분)이 정순금(강예슬 분)에게 '이년아'라고 저속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아침부터 자극적인 욕을 듣고 나니 하루 종일 기분이 불쾌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폭행이나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하다. 앞으로 자극적인 장면은 지양하고 TV소설의 장점을 살려 가슴 찡한 감동과 옛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8월 7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 일본의 원작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를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각색해 방송했다. 원작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존에 알던 내용과 많이 달라 신선하다는 느낌도 있을 것이다. 원작의 분위기는 충실히 전달하며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재창조하려는 제작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곡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장면에서 곡의 정보를 자막으로 알려준다면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월 15일 보고서>

| 4. 보도 |

○ 1TV 「KBS 뉴스특보」

- 17일(월) 21시경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해 당시 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중 참변을 당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사로서 신속하게 특보로 전환해 가족과 국민의 염려를 해소시키고 정확한 속보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정규방송을 신속하게 중단하고 특보 체제로 전환해 재난 분석 및 실시간 정보 전달 등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주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보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보행자나 직진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횡단보도가 녹색등일지라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보조 교통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은 물론 일반인들도 입장이 엇갈린다고 했다. 그런데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만 보도될 뿐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만이 아닌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여객선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현재 구조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2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로 계속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사고의 원인과 구조작업 상황 등은 이미 「KBS 뉴스특보」를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미 시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하기보다는 차라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유가족들의 현재 심경을 들어보고 시청자가 직접 전화 참여를 통해 구조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어려운 전문용어를 자주 사용해 토론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형 참사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기 보다는 「KBS 뉴스특보」를 통해 구조 활동 및 진행상황을 계속 보도해 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탈북 도중 행방불명된 딸을 찾고 있는 가족의 사례를 통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다뤘다. 탈북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의 유흥업소와 화상채팅방 등으로 팔려가고 강제 결혼까지 하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탈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보가 없어 탈북 여성들이 방송을 접하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사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5. 일기예보 |

○ 1TV 「KBS 뉴스9」

- 일기예보 시 지역별 날씨를 알려준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 동해안 지역 예보 시 보도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일기예보 제언

- 일기예보 시 '박무(薄霧)', '연무(煙霧)'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무'는 '얇게 낀 안개'로 '연무'는 '연기와 안개'가 낀 날씨로 풀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일기예보 제언

-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한 경우에 일기예보로 보도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잘 보도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적은 농도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기예보 시 미세먼지 농도를 언급해 준다면 야외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기예보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일기예보 제언

- 본인은 바닷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해변 산책을 자주 한다. 그런데 만조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산책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주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만조시간을 예보해 준다면 여행객이나 바닷가 인근 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0월 17일 보고서>

| 6. 선거방송 |

○ 1TV 「2014 지방선거」

-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자막으로 지역별 현재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표기해 보여줬다.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의 개표 상황만 여러 차례 자막으로 표기돼 일부 당에서 선거를 이기고 있는 듯 보였다. 개표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지역의 개표상황에 대해 알려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KBS 홈페이지 가상 출구조사 결과 유출

- 3일(화) KBS 홈페이지의 '6·4 전국지방동시선거 가상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됐다. 해당 자료에는 지역별로 당선자의 얼굴과 지지율까지 상세히 표기돼 있었다. 선거 출구조사는 투표일 당일에 실시하고 결과는 투표 시간 마감 후 공표되어야 한다.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유출 경로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KBS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및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7. 공정성 |

○ 1TV 「KBS 뉴스라인」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조건부로 채택한 서울디지털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이 출연했다. 곽일천 교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추가 채택을 통해서 복수 채택의 모습으로 갈 것이며 논란이 심했던 식민 지배를 미화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비난이었다고 발언했다. 곽일천 교장의 발언은 교학사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측에서 교학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는 편향되지 않도록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양측 모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KBS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3%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1%라고 했다. 천 명의 대상자 중 백 팔십 일 명만이 답변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인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낮은 응답률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이며 소규모 표본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대상을 대규모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KBS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5%라고 했다. 천 명의 대상자 중 백 칠십 오명만이 답변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설문에 응한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지 말고 여론조사 대상을 대규모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 시청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월 7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혼유사고를 집중 취재했다. 사례자들은 혼유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엔진의 주요 부품을 수리해야 해서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어야 했다. 본인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 경유차의 인기가 커지면서 혼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본인도 혼유 사고 차량을 수리해본 경험이 많다. 방송에 나온 한 사례자는 혼유 사고로 인해 차량의 연료펌프 게이지 등을 교체해야 해 총 260만 원의 수리비용을 감당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부품교체비용은 100만 원 정도이다. 혼유 사고를 악용해 수리비용을 부풀리는 정비업체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차량 사고 관련 방송 시에는 정비업체의 적정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취재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8. 사실성

○ 1TV 「KBS 뉴스9」

- 정부가 201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 중 유치는 허가제인 반면 어린이집은 신고제이며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이다. 보건복지부에 인가신청을 한 후 적합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유치원의 모든 교사가 임용고시를 치르는 것은 아니며 국·공립유치원에만 해당된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2014 신년기획 글로벌 리더의 선택」

-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인'이 김예동 박사라고 방송됐다. 그런데 최초로 남극을 방문한 한국인은 故 이병돈 박사이다.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이병돈 박사는 1963년 3월 6일 남극의 아르헨티나 에스페란사(Esperanza)기지에 상륙해서 남극대륙의 기후와 생태계를 조사한 사람이다.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고 남극의 최초 방문한 한국인을 김예동 박사로 오해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해 주길 바라며 틀린 정보에 대해선 정정 방송을 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락하면 회복되던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 경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화면으로 중국의 지도와 성장률을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지도에는 대만까지 그려져 있었다. 대만은 중국과 인접해 있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이다. 뉴스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사소한 부분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스포츠)」

- 주간 명장면으로 넥센 박병호 선수의 장외 홈런 장면을 소개하며 '전광판 넘어 140km 날아간 홈런'이라는 자막이 표기했다. 지난 5월 9일(금), 「KBS 뉴스12」에서 "박병호는 홈런 선두를 질주하며 비거리 140m로 공은 목동구장 밖으로 날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막표기에도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가수 현숙이 "여러 성씨를 모은 다른 족보 책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하자 김영복 감정위원이 벼슬을 지낸 사람만 모은 '잠영보(簪櫻譜)'라는 족보 책이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자막으로 '물 질편할 영(櫻)'이 사용됐는데 해당 부분에는 '갓끈 영(纓)'자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확한 한자 표기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1TV 「생명 최전선」

- 외국인 환자들을 돌보는 제주권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의 모습이 방송됐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수술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에서 'NGO(혈관조영술)'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혈관조영술'을 'angio'라고 표기하고 '엔지'라고 발음한다. 앞으로는 정확한 의학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9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스포츠)」

-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속된 강수일이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딛고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수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 혼혈 K리거”라고 언급됐는데 우리나라 최초 혼혈 축구 국가대표선수는 성남 일화와 부산 아이kons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장대일이다. 장대일 선수는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12월 18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보기 1번은 ‘성주 수박’, 보기 2번은 ‘전라남도 순창 고추장’이라고 나왔다.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으로 인정돼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 그런데 보기 2번에서 ‘순창군’은 행정구역 상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시청자로서 행정구역명이 틀린데 매우 불쾌했다. 지식을 겨루는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구역명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콜의 부인 ‘한네로레 여사’가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소개하며 사진을 보여줬다. 그런데 자료화면에 나온 얼굴은 ‘한네로레 여사’가 아닌 영국 전 총리 ‘마가렛 대처’의 사진이었다. 잘못된 자료화면이 나와 제작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였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검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지식」

- 한국예절문화원의 김우용 교수가 출연해 차례상 차리기와 추석 예절 등을 소개했다. 기제사를 지낼 때 과일을 홀수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우용 교수가 “홀수는 음의 수고 짝수는 양의 수이므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홀수로 많이 올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성명학에서는 ‘1, 3, 5, 7, 9’와 같은 홀수를 ‘양의 수’라 하고, ‘2, 4, 6, 8, 10’과 같은 짝수를 ‘음의 수’라고 한다. 그러므로 ‘홀수는 양의 수, 짝수는 음의 수’로 표현해야 한다. 앞으로는 틀린 정보가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9. 출연자/진행자

○ 1TV 「한국 한국인」

- 형지 그룹은 지난 2013년 11월, 협력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회사다. 그런 회사의 대표인 최병오 회장이 본인의 실패와 경험담을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감이 되지 않았다. 「한국 한국인」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그들에게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또한 기업의 대표를 출연자로 선정할 경우 해당 기업인이 기본적인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가 '남'인지 '남'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야구해설가 이병훈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도 다른 출연자들이 본인의 말을 하기 위해 끼어들었다. 여러 출연자가 동시에 발언을 하려고 하니 서로 말이 겹치는 등 전체적으로 산만한 방송이 이어졌다. '생생토크'는 출연자들이 각각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출연자들끼리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뒤에 발언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예의를 갖춘 뒤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3월 31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적 사건이나 배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패널들의 직업이 교수나 문학, 예술 계통에 치우쳐 있어 아쉽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을 섭외해 준다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흥미로운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패널 섭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TV 「뉴스 토크」

- 최근 아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임방글 변호사가 출연해 선고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거운 주제와 달리 출연자가 방송 내내 미소를 띠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아했다. 의상마저도 밝은 분홍색 재킷을 입고 출연해 방송을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방송 주제에 맞는 의상과 태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2TV 「1대 100」

- 방송인 현영이 1인 도전자로 출연했다. 현영은 지난 2013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송에 출연해 행복한 결혼생활과 자녀 계획을 이야기하며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근황을 전했다. 그런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범법을 저질러도 일정 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공영방송은 타 방송사보다 출연자에 대한 잣대나 규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연자 섭외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6월 12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예체능 팀의 새로운 멤버를 소개하면서 강호동이 정형돈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다. 친근하면서도 유쾌한 진행은 칭찬 받을만하지만 가끔 다른 출연자들에게 보이는 다소 위압적인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준다. 앞으로는 진행자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10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느라 힘들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방송했다. 과도한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출연자 섭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연자 섭외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1R 「생방송 토요일 정오입니다」

-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경제 읽기 코너에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출연한다. 그런데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이 좋지 않아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디오는 TV와 달리 출연자의 소리에 의존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정확한 발음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 청취자들이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R 「퀴즈가 좋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시사분야의 뉴스를 퀴즈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21일(월)과 22일(화), 양일간 '세월호'를 겨냥한 듯 한 퀴즈가 출제되고 있다. 아직 실종자도 많고 21일부터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고인데 이를 퀴즈 문제로 출제하니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실종자나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흘러간 노래 속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이다. 그런데 출연자가 설명하는 도중 진행자가 자주 끼어들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출연자의 발언에 호응하는 모습은 좋지만 청취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출연자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기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10. 방송품질 |

○ 1TV 「KBS 뉴스9」

-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음성으로는 자동이체 서비스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앵커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우 깜짝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방송사고로 생각돼 바로 사과를 기다렸으나 그대로 뉴스가 진행됐고 클로징 멘트에 진행 중 착오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마무리 됐다. 정확한 보도가 중요한 뉴스인 만큼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방송사고가 있을 시 빠르게 사과를 해 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2TV 「맘마미아」

- 개그맨 허경환이 본가에 찾아가 부모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모님과 식사하는 장면에서 자막이 자주 표기됐는데 자막이 나올 때마다 효과음이 들려 방송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효과음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청에 방해로 주는 과도한 효과음 사용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다양한 탈모 사례와 예방법을 알려줬다. 평소 탈모 치료에 관심이 있어 방송에 집중하려 했으나 방청객들의 호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방송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방청객의 호응 소리를 조절해 방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2TV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 극 중 민들레(김가은 분)가 일하는 식당 창문에 ‘찌게백반’이라는 메뉴가 적혀있다. 정확한 표기는 ‘찌개’라고 써야한다.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 부표 위에서 버블슈트를 착용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경기를 진행했다. 그런데 부표 위에 노란색 마름모 모양 위로 붉은 원이 그려져 일장기를 연상시켰다. 일장기와는 다른 노란색으로 바탕이 이뤄졌지만 붉은 원 모양으로 이뤄진 세트에 신경이 쓰여 방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작은 소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신경 써 제작해 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11. 프로그램 호평 |

○ 1TV 「TV, 책을 보다」

- 가상 도시 화양을 배경으로 정체불명의 전염병 빨간 눈의 확산과 극단적 상황에 처한 인간 본성을 그려 낸 작품으로 작가 정유정의 책 '28'을 소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축들의 무분별한 살 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맞물려 시의 적절한 선정이었다. 이 책의 소재인 개와 전염병을 주제로 인간 내면의 위기의식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오한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소개해 주어 유익함을 더했다. 계속해서 최근 논쟁거리를 반영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더불어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 지적장애인 소영 씨와 시각장애인 아버지 수동 씨의 일상을 다뤘다. 장애가 있음에도 하루하루를 밝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부딪쳐 나가는 부녀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본인은 평소 장애인은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장애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가 낸 수신료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 써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좋은나라 운동본부2」

-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인이 복잡한 터미널에서 택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한 뒤 도움을 주는 '감동 시민'을 찾는 내용이 방송됐다. 터미널을 찾아가는 것부터 택배를 보내기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손가락으로 위치만 알려줬고 출연자는 한글을 읽을 줄 몰라 난간에 부딪혔다. 하지만 한 남성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출연자가 떨어뜨린 택배를 함께 들어주며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를 안은 여성은 무거운 짐을 들고 터미널에 가서 자신의 일처럼 택배까지 보내주는 장면은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만연해 있는 요즘 감동 시민의 겸손한 모습은 더욱 뭉클하게 했다. 앞으로 감동 시민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준다면 더욱 흐뭇할 것 같다. 가슴 따뜻한 시간을 마련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7월 4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 KBS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주요동정과 미사행사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해줬다. 본인은 천주교 신자로 이번 교황 방문에 큰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편안하게 교황의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교황이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모두 담아내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줬다. 124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 고생했을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8월 21일 보고서>

○ 1TV 「KBS 파노라마」

-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특별기획으로 고려인들의 역사를 짚어보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의 3부작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이들은 이주 70년 만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며 온갖 수탈과 역경을 이겨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직접 들어보니 유량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고려인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3부작의 방송을 통해 유익한 내용을 알게되어 매우 좋았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남북 분단을 비롯한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같은 민족인 고려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방송이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써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9월 1일 보고서>

○ 1TV 「튼튼생활체조」

- 쉬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알려줘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체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온가족이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랫동안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10월 7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례를 들어 공부 잘하는 비결을 분석했다. '분산 학습'과 '메타인지' 기술 등 공부 잘하는 비결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줘 매우 흥미로웠다. 이번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공부습관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어 실제 학습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1TV 「2014 트로트 대축제」

- 2014년 성인가요를 결산하는 무대로 한 해 동안 인기를 끌었던 노래와 함께 타악기 공연, 벨리댄스, 어린이 응원단, 탈춤 등의 화려한 무대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올해는 유난히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해를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12월 31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실태를 알아본 방송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다. 본인도 사이버테러 피해자로서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인터뷰까지 보여주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했다. <1월 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세월호 사고 이후 방송이 6주 만에 재개됐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출연진 100여명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며 오프닝을 장식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개그 프로그램답게 단순히 웃음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 준 것 같아 훈훈함이 느껴졌다. <6월 9일 보고서>

○ 2TV 「드라마 스페셜」

-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담은 액션 사극을 시청했다. 지나치게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 물정이 어두운 주인공 간서치(한주완 분)와 기생이지만 한번 본 책은 다 외워버리는 계월(민지아 분)의 독특한 캐릭터 설정은 보는 재미를 더했고 풍자와 해학이 가미돼 진한 여운을 남겼다. 또한 TV로 방송되기 전, 웹과 모바일 플랫폼(네이버 캐스트)을 통해 웹 드라마 형식으로 먼저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10월 23일 보고서>

○ 1R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 최근에는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책 읽기에 국한된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 인문학을 접하게 되니 그동안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5월 28일 보고서>

12. 표현소재

○ 1TV 「KBS 뉴스광장」

- 연말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알코올성 위염'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도했다. 보도 중 자료화면으로 폭탄주를 제조하는 모습이 나왔다. 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면서 굳이 폭탄주 제조하는 방법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모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장면은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세계는 지금」

- 중국의 허베이 성 모피시장을 찾아가 모피를 얻기 위해 잔인한 동물 도살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방송했다. 그 곳에서는 동물들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좁은 우리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상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인들이 쇠몽둥이로 동물을 때려서 죽이고 바닥에 내팽겨 치는 장면이 거의 화면효과 처리도 없이 나와 무척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또한 죽은 동물들의 혈흔과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줬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잔인한 장면이 여과 없이 나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자극적인 자료화면은 철저히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KBS 교향악단 연주회」

-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감성적인 클래식 선율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회 차 정보와 연주곡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표기되는데 자막 크기가 작아 알아보기가 어렵다. 연주회 특성상 곡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뒤 감상하는 기쁨은 배가 된다. 앞으로는 자막 크기를 크고 선명하게 조절해 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정해진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무작위로 골라 대화하는 이른바 '랜덤 채팅'에 대해 보도했다. 모바일 메신저들이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며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화면과 성인인증 절차도 없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돼 따라하는 청소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장면은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10월 2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앵커가 "11월 17일, 어제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자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을사조약이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조약이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국제 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약이 아닌 늑약이라고 규정하며 '을사늑약'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KBS 예능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을사조약' 대신에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1월 19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지난 3일(금), 그룹 '걸스데이'가 출연해 타이틀곡 'Something'을 선보였다. 그런데 붉은색 옆트임 드레스를 착용하고 한 쪽 허벅지를 흰히 드러낸 채 하는 안무동작이 무척 선정적으로 느껴졌다. 중학교 2학년인 자녀와 함께 시청하기에는 민망한 장면이었다. 주 시청자가 청소년층임을 감안해 여자 아이돌 가수의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는 규제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연기자 도희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개그맨 이상훈이 주스가 아닌 아메리카노를 찾자 "야 뒤질래! 그냥 주는 대로 쳐 먹어라, 확 창자를 꺼내서 젓갈을 만들어 버릴랑께!"라고 말했다. 지나친 욕설과 폭력적인 연출이 더해져 시청하기 불쾌했다. 청소년들도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발언 수위를 조절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 지난 2010년에 발생한 강력반 형사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시신의 상흔을 보여주는 자료화면에서 상흔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시청하기에는 혐오스러웠고 불쾌했다. 앞으로는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화면효과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개그 콘서트」를 시청한다. 최근 방송을 보면 '끝사랑', '편하게 있어', '취해서 온 그대' 코너 등에서 술집을 배경으로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개그 콘서트」는 시청가능연령이 15세 이상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시청가능연령과 무관하게 음주에 대한 장면이 여러 코너에서 방송돼 자녀와 함께 시청하기가 부담스럽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방송을 보며 음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고려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는 지양해 주기 바람에 건강한 소재로 건강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

- 제주공항에서 모슬포항까지 3명의 멤버가 화물차 짐칸에 탑승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나왔다.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운행을 하는 모습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시청자상담실에 문의하니 해당 차량은 앓을 수 있는 좌석과 안전띠를 설치, 개조한 차량으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1박 2일은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짐칸에 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임을 자막으로 안내해 주기 바란다. <12월 23일 보고서>

○ 보도 영상 제언

- 철새 이동에 따른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병으로 닭과 오리를 매몰 처리한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자료화면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조류를 자루 속에 넣어 매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감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채로 매몰되는 장면은 잔인할 뿐 아니라 혐오감까지 느끼게 한다. 또한 해당 장면을 접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동물 생명 경시 풍조를 배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앞으로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화면은 화면효과 처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3. 언어 |

○ 1TV 「KBS 뉴스12」

- 비용이 상승되거나 하락된 품목에 대해 보도하며 '수입산' 조기라고 표현했는데 '산(産)'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해당 지역에서 산출된 물건이라는 접미사이므로 '외국산'이라고 해야 한다. 사소한 표현이라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상영 요리연구가가 출연해 천연 양념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참치액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마늘을 가리켜 '애'라고 지칭했다. '애'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어휘로 사물을 가리킬 때에는 지시대명사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념을 만들면서 "설탕도 살짝 넣으시고, 소금도 살짝 넣으시고"라고 했다. 해당 표현은 '설탕'과 '소금'을 높이는 사물존칭이다. 출연자들이 틀린 표현을 사용할 경우 진행자가 정정해 주기 바라며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취재파일 K」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화면 왼쪽에 방송 부제로 '고졸 · 경단녀...여전히 벽!'이라고 표기됐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바른말 사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줄임말 표현을 지양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당일 방송되는 「비타민」의 주제를 스크롤 자막으로 알려줬다. '허벅지가 얇은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높다'라고 표기됐는데 팔이나 다리 등은 '굵다'와 '가늘다'로 표현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표현인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자막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

- 윤봉길 의사 의거 82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특파원이 "일본 천황의 생일과 전승기념일을 겸한 축하행사에서 터진 폭탄 한발"이라는 발언을 했다.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1R 「15시 뉴스」

- 똑같은 선물세트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보도하면서 백화점과 오픈마켓의 가격이 30%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오픈마켓은 우리말로 '열린 장터'라고 사용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이 출연해 연휴를 보내고 난 뒤 만성피로를 이겨내기 위한 올바른 한약재 사용법을 알려줬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한약재 이용법을 소개하면서 "황기차를 마시는 것이 노폐물을 몰아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피로회복제"라고 말했다. 피로는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로해소'나 '원기회복'이라고 해야 한다. 제작진은 출연자가 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 1TV 「KBS 뉴스7」

-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던 여객선 돌핀호가 엔진 고장으로 울릉도로 회항 중이라고 보도하며 자료화면으로 승객들이 여객선에 탑승하는 장면이 나왔다. 본인은 울릉도와 독도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다른 여객선의 직원이다. 자료화면으로 나온 여객선은 돌핀호가 아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객선으로 뉴스가 나온 뒤 회사로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잘못된 자료화면으로 피해를 입어 불쾌하다. 해당 자료화면의 영상을 수정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

- 지난 1월 17일(금)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충정로역 고가 밑 도로가 평소와 달리 차가 막혀 출근 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졌다. 확인해 보니 「총리와 나」드라마 제작진이 충정로역 고가 밑 도로를 통제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다. 드라마 촬영이라는 이유로 출근 시간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여 매우 불쾌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야외 촬영 시간대나 장소 선정 시 유의해 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KBS 보도국장 발언 불만

- 최근 KBS 보도국장이 뉴스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수는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를 생각했을 때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상황을 외면한 발언으로 희생자 가족들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다. 공영방송 보도국장의 발언이라고 하니 더욱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처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뉴스를 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보도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바라며 KBS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15. 간접광고 |

○ 1TV 「KBS 뉴스광장」

- 제주도 성산일출봉의 해돋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기자가 착용한 패딩점퍼의 상표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는 만큼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생생 정보통」

-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반곡마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방송됐다. 기차역인 구례구역에 도착한 장면이 나왔는데 제작진이 들고 있는 카메라에 'CANON'이라는 상표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상표명이 화면처리도 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노출돼 간접광고처럼 느껴졌다. 앞으로는 상표명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16. 홈페이지 |

○ 1TV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정도전」

- 4일(토), 방송분을 보기 위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본 방송 후 3시간 이내에 서비스 됩니다.'라고 공지되어 있다. 앞으로는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데이트 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시청소감 게시판에 보면 팬들이 서로 싫어하는 가수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가수 B1A4가 음반을 사재기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담당자는 해당 게시판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게시판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삭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KBS Classic Now 홈페이지 제언

- 클래식 전문 홈페이지 'KBS Classic Now'는 클래식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줘 즐겨 이용한다. 특히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마이 뮤직'에 저장해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그런데 12곡 이상의 곡이 있으면 전체 리스트와 하단의 '마이 뮤직 담기'와 '선택 삭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지만 배경화면과 같은 어두운색이라 홈페이지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는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플레이어의 전곡과 메뉴가 잘 보이도록 오른쪽 스크롤바 색상을 대조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3R 「소설극장」

- 책을 읽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면서 귀로 들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다. 매회 빠짐없이 청취할 만큼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책의 줄거리나 배경을 맡은 성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목) '작은 아씨들' 이후로는 성우 배역표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책의 줄거리와 성우의 정보를 알고 방송을 청취하면 극의 내용에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8월 14일(목) 부터 방송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현재 방송 중인 '28'의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 해 주기 바란다. <9월 18일 보고서>

17. KBS 애플리케이션

○ 1TV 「KBS 뉴스9」

- 뉴스 홈페이지에 보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를 시청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코너가 신설됐다. 이 코너는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로 참여하고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은 주로 스마트폰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시청하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코너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가 없다. 바쁜 현대인은 TV나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최근 시청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뉴스를 시청하는 추세를 감안해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해 준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14일 보고서>

○ 1R 「다큐멘터리 혁신의 승부사」

- 팟캐스트(Podcas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큐멘터리 혁신의 승부사」를 듣고 있다. 그런데 본방송 이후 업데이트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을 공지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모바일 콩(KONG) 애플리케이션

- 지난 10월 1일(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라디오 실시간 방송과 다시듣기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콩(KONG)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된다는 라디오 광고 내용과는 달리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무료이고 3G나 LTE 환경에서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Wifi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어 방송 중에 유료임을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콩(KO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홍보 시 데이터 환경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해 청취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모바일 콩(KONG) 애플리케이션

- 본인은 평소 이동 중에 라디오를 즐겨 청취한다. KBS에서는 10월부터 스마트 폰을 활용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더욱 편리하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다른 채널과는 달리 클래식 FM의 선곡표가 확인이 되지 않아 아쉽다. 클래식 음악은 연주자에 따라 감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연주자와 앨범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곡표 정보를 알려주기 바란다. <12월 17일 보고서>

18. 시청자 권익

○ 1TV 「6시 내고향」

- 지난 7일(화), 저녁 6시 이후부터 갑자기 본인의 휴대전화로 '천문동' 주문 전화가 폭주했다. 확인해 보니 「6시 내고향」 홈페이지에 '천문동' 판매자의 연락처가 본인의 연락처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앞으로는 방송과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9」

-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렸던 어르신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몇 달 전 고인이 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가족들은 울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이 화면효과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됐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못하고 떠나간 고인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이겠지만 그 가족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시청자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고인과 가족들의 초상권이나 개인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12」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용의자 정 씨가 시민의 제보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도주범이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술집 업주의 최초 제보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자료화면 상 제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과 술집이라는 단서만으로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어 용의자가 출소하거나 지인들의 보복범죄가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된다.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사료되는 만큼 제보자의 익명을 지켜 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19.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이혼의 위기에 처해있는 부부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드라마이다. 방송 초반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자막이 표기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만큼 청소년이 시청하기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청가능연령 고지 시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는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로 수정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송년특집 우리는 두번째 학교에 간다」

-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공론화 시킨 내용으로 관심 있게 시청했다. 성적 스트레스와 심한 체벌, 가출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아이들의 깊은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이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공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방송에 출연한 학생들의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도 화면효과 처리를 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는 장면에서 한 학생의 실명이 언급돼 그 학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20. 장애인/차별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며 「생로병사의 비밀」을 즐겨 시청한다.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본 방송을 놓칠 경우 Able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은 화면해설방송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이 Able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12」

- 「KBS 뉴스12」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하단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수화통역서비스 화면이 너무 작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청각장애인들이 TV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화통역서비스 화면을 좀 더 크게 늘려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시대별로 달라지는 바보연기와 바보연기 전문 스타들에 대해 방송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 코미디 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을 주는 내용이 많으며 자료화면으로 영화 '말아톤'을 보여줬다. '말아톤'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속 모델이었던 사람은 현재도 존재하는 인물이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21. 난시청

○ TV공시청시설 기술교육

-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원 KBS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기간 동안 수신기술과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공시청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실습 강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인같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과정이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려 준 강연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마련해 준 KBS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7월 31일 보고서>

○ 난시청 해소 감사 인사

- 갑자기 시골 어머니 집의 TV가 수신되지 않아 KBS 대전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을 했고 안테나를 교체해 주며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혼자 계시다보니 TV 시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먼 곳까지 방문해서 신속하고 친절히 서비스를 제공해 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9월 19일 보고서>

○ DMB 오디오 품질 제언

- DMB를 통해 「콘서트 7080」을 시청했다. 그런데 배경음악이나 반주소리는 잘 들리는 반면 진행자와 가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시청하기 불편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더불어 DMB 보급도 확산되고 있어 이동 중에도 DMB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DMB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들의 욕구에 맞춘 특화된 DM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2월 16일 보고서>

| 22. 시청자서비스 |

○ 시청자상담실 이용 만족 호평

- 3. 29.(토) '프로야구 중계' 예고편이 나올 때 방송된 배경음악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자상담실 1:1 메일로 문의를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이 음악을 듣고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고 싶어 문의는 했으나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한 질문이라 답변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이를 뒤 시청자상담실에서 답변을 받았다. 평소 웃음이 없던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시청자상담실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청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청자상담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4월 1일 보고서>

○ KBS 임직원 및 시청자상담실 격려

- KBS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기쁨과 슬픔, 감동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고해준 KBS 임직원들과 어려운 질문에도 항상 친절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준 KBS 시청자상담실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2월 31일 보고서>

| 23. 시청자 참여 |

○ 1TV 「새해맞이 특별생방송 아리랑 코리아」

- 새해맞이 특별생방송 「아리랑 코리아」를 방청하기 위해 KBS홀을 방문했다. 사전에 방청 신청을 받지 않고 생방송 당일 KBS홀 앞에서 좌석권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무질서하게 줄을 서서 좌석권을 배부 받는 등 매우 혼잡했다. 겨우 좌석권을 배부 받고 나서야 입장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확인해보니 동일한 좌석권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방청객이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방문했는데 실망만 가지고 돌아왔다. 앞으로는 방청객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좌석권 배부 및 방청객 인솔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해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방송 중에 전화로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시청자 참여가 가능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전화를 개설해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TV 「사랑의 리퀘스트」

-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 장애인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난치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연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 중 화면의 왼쪽 상단에 후원 전화번호 'ARS(060-700-0600)'자막이 표기되는데 후원 금액은 표기되지 않아 후원을 하고 싶어도 망설여진다. ARS로 전화를 걸어도 안내 멘트와 "감사합니다."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후원 금액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앞으로는 한 통화 당 후원 금액을 ARS 고정 자막으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ITU전권회의 특집 스마트 독쇼 나를 따라라」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시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힌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 11월 1일까지 경품당첨자 게시판에 정보를 올려달라는 내용과 기한 내에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또한 상품은 11월내로 발송된다는 내용이 함께 공지되어 있는데 본인은 현재까지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속된 기일 내에 상품이 발송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개별 연락을 통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24일(수), 「개그 콘서트」방청 시간에 늦어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계단에서 관람을 하게 됐다. 본인 외에도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2시간 30분정도 되는 녹화 시간동안 딱딱한 계단에 앉아있으니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가 반감됐다. 「개그 콘서트」는 연기자와 방청객의 호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방청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9월 26일 보고서>

| 24. 프로그램 구매 |

○ 1R 「행복한 시니어 새해 특집」

- 「행복한 시니어 새해 특집」이 방송됐는데 '소통 365', '자원봉사 365'의 방송 내용은 2014년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였다. 1월 1일, 방송 내용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 확인해보니 라디오 프로그램은 구매가 어렵다고 했다. 차후엔 라디오 방송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마치 여행 장소에 직접 가 있는듯한 느낌이 든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R 「경제 세미나」

- 경제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즐겨 듣는다. 간혹 방송을 놓치거나 인상 깊었던 강연은 다시듣기를 통해 들곤 한다. 그런데 다시듣기 가능한 기간이 방송 후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아쉽다. 본인과 같은 일반인들은 경제에 관련된 강연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 다시듣기가 불가능하다면 훌륭한 강연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판매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11월 13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 지루하고 딱딱해지기 쉬운 역사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줘 가족 모두가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는 만화로 역사를 설명해주는 장면을 보며 책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방송 내용을 도서로 발간한다면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저널 그날」의 도서 발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25. 방송경영(정책) |

○ 창원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해산

- KBS 창원방송총국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 6월, 어린이 동요 프로그램인 「열려라 동요세상」이 폐지됨에 따라 단원들도 해산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5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합창단이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해산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소질과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창원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해산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2015년 방송지표 호평

- 2015년 KBS 방송지표를 <광복 70년 미래 30년 100년의 드라마>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느껴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역사는 현 시대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밑거름이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 대표방송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12월 31일 보고서>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는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청자본부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감사실장, 법무실장, 편성국장, 편집주간, 교양문화국장, 기술관리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 (<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45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계
26	6	11	2	45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 됩니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의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²⁾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 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가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 2010년 6월 11일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시청자본부장이다.

2014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272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272건】

구분 월	고충처리 홈페이지	시청자 상담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3	3	29	35
2	1	9	0	10
3	0	7	22	29
4	2	6	34	42
5	0	3	6	9
6	2	2	32	36
7	4	2	12	18
8	3	10	7	20
9	1	1	14	16
10	0	1	25	26
11	3	0	10	13
12	3	0	15	18
계	22	44	206	272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 (70건)			비제작부문(202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DI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9	20	41	180	16	6	272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아나운서 언어등)	12	4%
보도 취재요청 (스포츠 포함)	13	5%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9	3%
진행	3	1%
정정요청 (보도, 프로그램)	2	1%
권리침해 (초상권, 명예정보 등)	19	7%
방송평가 (드라마, 내용, 제언 등)	13	5%
시청자만족 (방청, 홈페이지, 직원 및 시설평가)	18	7%
난시청	8	3%
수신료	175	64%
계	272	100%

7

제작진의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의 답변

‘KBS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국이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³⁾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⁴⁾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국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⁵⁾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 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편성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결방고지 지적 - 17일(월) 월화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연속 2회 방송 관계로 결방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벌써 방송이 2주째 결방되고 있다. 앞으로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프로그램 홈페이지 상에 결방 안내를 공지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2TV 편성부 - 18일(화)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중계 편성으로 17일(월)은 드라마가 1, 2회 연속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주 부터는 정상 방송될 예정이며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양해자막을 넣을 예정입니다.
	☐ 1TV [강연 100°C] 결방 지적 -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 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1월 26일 「강연 100°C」가 방송되지 않고 「겨울방학특집 꿈을 말하다」가 방송되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린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편성 변경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 한다. 앞으로 편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고지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TV 편성부 - 갑작스러운 편성 변경이 아닌 일주일 전부터 계획된 편성입니다. 특집 프로그램 담당 제작진들이 정규 프로그램 편성 결방에 대한 자막 고지를 대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집 프로그램 방송 시 정규 프로그램 결방 고지를 규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TV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제로 프로젝트> 재방송 편성 제언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너이다. 그런데 지난주 12일과 13일, 15일 총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방송됐다.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일주일 3차례씩이나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재방송 편성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1TV 편성부 - 의견주신 '제로프로젝트'는 20분물의 필러(filler)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8일 현재, 총 9번에 걸쳐 4종류의 <행복발전소 제로프로젝트>가 편성됨으로써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같은 내용을 중복 시청하신 것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필러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반복은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TV편성부에서도 보다 다양한 필러물 확보를 위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필러물이란? 방송과 방송 사이에 빈 공간(시간)이 생길 때 끼워 넣는 짧은 프로그램을 지칭함.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편 성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으로 인한 정규 프로그램 결방 참가요청 - 24일(수), 저녁 시간대 1, 2TV 양쪽 채널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중계해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본인처럼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은 시청권을 박탈당한 기분일 것이다. 특히 야구의 경우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방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일한 경기를 타 방송사와 동시에 중계하는 것은 전파 낭비처럼 느껴진다. 타방송사와 동일한 경기를 중계하는 것은 피해주기 바람 KBS는 1, 2TV 2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정규 프로그램 결방을 삼가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편성국 - 충분한 고지와 배분을 통해 중계시간을 정했으나 더 많은 경기의 중계에 대한 요청이 있어 1TV의 중계가 늘었습니다. 2TV는 현장에서 경기 시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 고지된 편성표대로 방송이 됩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경기(박태환 선수 경기, 야구, 리듬체조)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 3사의 추첨을 통해 배당받은 경기를 중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편성 중복을 막기 위해 같은 시간대에는 중계는 하지 않으려 하나 의무 편성과 주요 관심 경기의 경우 1, 2TV 동시에 중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편성의 다양성을 위해 편성하려합니다.
	□ 1TV [세상은 넓다] 전국 방송 편성 요청 - 일반인들이 직접 촬영한 화면과 함께 여행 중 경험담을 들려 줘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동시간대에 「TV이웃 다정다감」이 방송되고 있다. 지역 거주민들도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다양한 여행지의 정보를 얻고 시야도 넓힐 수 있도록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1TV 편성부 - 1TV (월-금) (17:40-18:00) 시간대에는 지역 로컬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입니다. 지역 방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로컬존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시청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상은 넓다」의 경우 재방송 편성은 없으나 부서 회의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국인의 밥상] 1, 2TV 동시편성 지적 - 4월 30일(수) 동 시간대에「한국인의 밥상」이 1, 2TV에서 각각 재방송으로 나왔다. 시청하다 보니 방송 내용은 달랐지만 두 채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방송돼 당황스러웠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방송 편성이 유동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동시간대 동일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1TV 편성부 - KB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아시는바대로 KBS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1,2TV 모두 비상방송체제로 전환, 운영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양 채널 모두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능, 오락 프로그램들을 포함,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편성 삭제하고 교양 및 다큐프로그램으로 대체편성 했습니다. 특히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2TV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대체편성이 불가능하여 1TV의 다수 프로그램을 재방송 편성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1,2TV에서 동시간대에 <한국인의 밥상> 방송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회차의 방송이긴 했으나 동일 프로그램이 두 채널에서 방송된 것은 적절치 못한 편성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이후 두 채널 편성부에서 문제점을 인식,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채널 간 상호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뉴스광장] '순국선열의 날...이 회영 선생 난앞으로 칼 얻다' 을사조약 표현에 대한 제언 - 앵커가 "11월 17일, 어제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자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을사조약이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조약이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국제 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약이 아닌 늑약이라고 규정하며 '을사늑약'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KBS 예능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을사조약' 대신에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문화부 -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의 차이는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을사조약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참고로 리포트 초반에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가 강제로 박탈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일제가 강제로 박탈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조약의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 1TV [KBS 뉴스9] '주사 맞으면 아기 피부?...' 동영상 서비스 중단 요청 -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이른바 '리턴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은 해당 피부과의 원장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내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했다. 또한 종합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조직 검사 결과표를 토대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성분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측의 잘못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사회2부 - KBS 보도준칙에 의해 취재한 내용이며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부분은 없으며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중단은 어렵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일기예보 시 사용되는 단어(박무, 연무) 쉬운 표현 사용 요청 - 화면 오른쪽 하단에 지역별 날씨가 표기된다. 그런데 '박무', '연무'라는 단어를 사용해 어떤 기상상태를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박무(薄霧)', '연무(煙霧)'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만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 박무(薄霧) : 안개보다 습도가 낮고, 회색이며 입자는 더 작은 것으로, 연무와 비슷하나 습도가 더 높은 현상으로 얇게 낀 안개를 뜻함. - 연무(煙霧) :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나 먼지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함. [국립국어원]	☐ 담당부서 : 과학·재난부 - '박무', '연무'는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기예보 자막의 경우는 기상청의 데이터가 KBS로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어 자막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별도 수정은 어렵습니다. 제한된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기상청측에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 1TV [KBS 뉴스9] '폭행 물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 전원 사퇴' 실명공개 요청 -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운전기사 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전원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현장에 함께 있던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가족과 저녁을 함께 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라고만 언급했다. 타 언론사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보도한 바 있으나 KBS에서는 실명이 아닌 소속만 언급돼 의아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실명을 밝혀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보도국 - 보도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00 의원이 실제 폭행을 했거나 욕설을 했다면 공인으로서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가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연예수첩 - 흥행 보증 수표! 바보 연기의 매력> 보도 내용 제언 - 시대별로 달라지는 바보연기와 바보연기 전문 스타들에 대해 방송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 코미디 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을 주는 내용이 많으며 자료 화면으로 영화 '말아톤'을 보여줬다. '말아톤'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속 모델이었던 사람은 현재도 존재하는 인물이다. 자폐아는 물론 현존하는 인물까지도 바보로 폄하된 것 같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뉴스제작 3부 - 1. 방송 취지와 제작 의도 : 우선 본 방송의 취지는 최근 배우들이 다양하고 쉽지 않은 캐릭터에 도전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그동안 화제가 됐던 배우 류승룡, 주원 등의 연기변신에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연기변신에 성공한 배우들의 극중 모습 및 당시 맡은 역할의 매력 그리고 연기 변신 이유 등을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극중 역할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출연자=바보'가 아닌, 쉽지 않은 캐릭터를 잘 소화한 배우들을 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드라마 속 내용을 팩트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침뉴스타임 <연예수첩> 코너의 특성에 맞게 다시 창작한 내용입니다. - 2. 과거 캐릭터와의 비교 : 과거 대표적인 캐릭터(영구, 맹구)들을 VCR 초반에 함께 소개한 이유는 예전에는 코미디 등에서 단순히 웃음 유도를 위한 연기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들이 연기에 가미되면서 관객들에게 웃음보단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3. 팩트와 주관을 명확히 구분 : 특히 영화 <말아톤>과 <맨발의 기봉이> 등의 경우,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을 통해 이 작품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스토리임을 확실히 밝혔으며 극중 캐릭터는 '바보'라는 표현이 아닌 정확한 병명(자폐증)을 적시해 일부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우 주원의 열연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굿닥터>의 경우, 극중 '박시온'이 앓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왜곡 시키거나 희화화 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뿐 아니라 배우 주원의 뛰어난 연기를 통해 이 캐릭터가 얼마나 잘 표현됐는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방송 당시, <굿닥터>의 영상을 자료로 쓰는 데 있어 극중 주인공의 우스꽝스런 모습이 아닌, 의사로 성장한 배우의 당당하고 따뜻한 인간미 등을 잘 나타낸 자료화면을 활용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이 역할을 잘 소화한 주원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는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4. 결론 : 본 방송은 실제 상황들을 희화화하기 위함이 아닌 드라마 및 영화 속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배우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또 어떤 열연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뉴스9] <현장추적 - 대형마트 도난 방지 장치 무력화 비상> 모방 범죄 우려 지적 - 대형마트에는 고가의 상품마다 도난을 막기 위한 장치가 달려있지만 이를 떼어내는 기구가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택 분리기'라는 검색어로 실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기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다. 또한 기자가 직접 구입한 도난방지태그 분리기를 가지고 대형마트로 가서 실제 제품들에 분리기를 사용해 보는 장면도 연이어 방송됐다. 뉴스를 보고 호기심으로라도 도난방지태그 분리기를 구매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는 청소년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도인 만큼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사회2부 - 먼저 KBS 뉴스를 시청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25일 9시뉴스에서 방송한 <현장추적, 대형마트 도난방지태그..무용지물>은 제작진이 뉴스의 제작 과정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아이템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범죄의 수법이 일부나마 방송되면서 혹시나 모방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취재진이 대형 마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도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한 결과, 이미 도난방지 태그 휴대용 분리기를 이용한 수법이, 이들 절도범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절도용 물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팔리고 또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도의 표적이 되는 대형마트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미온적이었고 심지어 절도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는 등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이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보다 훨씬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절도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글로벌24] 배경음악 사용 제언 - ‘글로벌24 브리핑’ 코너가 끝나고 다음 코너가 진행되기 전 무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보이면서 ‘기동전사 건담 SEED O.S.T’가 배경음악으로 나온다. 일본은 과거사 부정,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뒤바꾸고 거짓된 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주역인 아이들에게조차 왜곡된 역사를 심어주고 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일본은 자국의 국민들을 속이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방송에서 일본의 문화나 음악 등을 소개한다면 이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를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서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일본을 연상할 수 있는 음악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국제부 - 다음 코너가 ‘떠도는 우주 쓰레기’ 낙하 피해 우려...대책은?’으로 우주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 미래를 연상하는 분위기의 배경음악으로 기동전사 건담SEED O.S.T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뉴스9]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지적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KBS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3%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1%라고 했다. 천 명의 대상자 중 백 팔십 일 명만이 답변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인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낮은 응답률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소규모 표본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대상을 대규모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KBS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5%라고 했다. 천 명의 대상자 중 백 칠십 오명만이 답변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설문에 응한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지 말고 여론조사 대상을 대규모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 시청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담당부서 : 정치외교부 -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은 전체 전화수화기를 든 응답자 중에 실제 조사 완료된 응답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응답률 18.1%라 하면, 5524명의 전화 수신자 가운데 1,000명이 마지막 문항까지 조사에 응했다는 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표본이 천 명이 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응답률은 조사 표본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조사에 대한 거부나 기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응답률의 높고 낮음은 조사 수준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현재 한국에서 전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5~2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시행하는 일반적인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이며, 이들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더라도 ARS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3~5% 내외에 불과합니다. 국민 성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인 만큼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응답률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천 명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천 5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조사를 매일같이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KBS는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줄곧 해 온 것처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그 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며,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전화 여론조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시기 KBS와 타 매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KBS-미디어리서치 (응답률 18.1%): 대통령 국정 지지도 63.1% SBS-TNS 코리아 (응답률 15.5%): 대통령 국정 지지도 63.6% 중앙일보 (응답률 18.7%): 대통령 국정 지지도 62.7% 리얼미터 (응답률 5.3%): 대통령 국정 지지도 55.1%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응답률 미발표): 대통령 국정 지지도 61.6%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뉴스9]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관련, 보도 순서 제언 - 7일(월)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하던 대학생 다수가 사망하고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다음날이 되어서야 최종 사망자가 10명으로 확인됐고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들은 물론 사고 현장을 접한 국민들도 침통함을 느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S 뉴스9」에서 첫 소식으로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부터 전했다. 메달 획득 소식도 중요하지만 국내 사망자가 10명에 이르는 대형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 참사 소식부터 먼저 보도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큰 재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뉴스제작1부 -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KBS 뉴스9」가 시작되기 한 시간 이내에 획득했기 때문에 짧게 보도했습니다. 리포트 개수를 따져보면 금메달 관련 소식은 2건, 대학생 참사 재난 소식은 11건으로 양적인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재난 상황 소식이 다뤄진 것입니다.
	☐ 1TV [KBS 뉴스9]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대상 선정 제언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KBS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3%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1%라고 했다. 천 명의 대상자 중 백 팔십 일 명만이 답변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인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낮은 응답률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소규모 표본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대상을 대규모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정치외교부 - 이번 조사결과의 응답률은 통상적인 수준 및 범위의 응답률입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할 때마다 2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청자가 제시한 응답률을 높이려면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 1TV [KBS 뉴스9] '길고양이 제거, 보호 갈등 격화' 보도 내용에 대한 제언 - 길고양이들로 피해가 늘면서 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물학대라며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반론이 있다고 했다. 늘어만 가는 길고양이는 쓰레기를 뒤지고 분변 냄새와 한밤 울음소리까지 더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행했고 피해 민원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했다. 그런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문제점만이 보도되고 길고양이들이 버려지게 된 이유나 대안에 대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점만 부각되어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순서라며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시청자 투표 질문을 보면 '서울에만 25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고 중성화 수술비용도 마리당 14만 원 정도인데 늘어나는 길고양이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되어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넘쳐나고 있어 공존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중성화 수술비용만 부각되고 안락사 비용이나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제거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를 여부를 투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제거가 아닌 보호를 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담당부서 : 사회2부 -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임을 고려해 볼 때 죽이고 학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하에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오해와 학대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생명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동물을 무조건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3. 5.(수)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 가까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스포츠	□ 1TV [KBS 뉴스9(스포츠)] '인권 무지 폭력, 구타..한국스포츠' 자료화면 사용 지적 - 체육계의 비정상 관행을 소개하면서 프로 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의 유재학 감독이 소속팀 함지훈 선수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게 한 사건을 보도했다. 작전타임 도중 감독이 선수에게 폭언을 하며 선수의 입에 억지로 테이프를 붙이게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왔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스포츠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해당 선수가 보도를 접하고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며 상처받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인격모독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화면효과 처리 후 방송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스포츠취재부 - 앞전에 구타사건은 대학교 운동부로서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울산 모비스 피버스는 프로구단으로서 당시 경기가 생중계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중계 영상을 받은 것으로 별도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 2TV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박세영 선수 인터뷰 진행 제언 - 우리나라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준결승 경기를 시청했다. 이호석 선수가 2위로 달리던 중 미국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아쉽게도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주에 탈락한 박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다. 경기가 끝난 직후라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 것이며 더군다나 탈락으로 인해 선수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속상할 것이다. 억울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겠지만 앞으로는 선수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편안한 상태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스포츠 취재부 - 쇼트트랙 5,000m 경기 중 이호석 선수가 경기 막판에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미국 에두아르도 알바레스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계주에서 탈락한 박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박세영 선수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어왔고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선택이며 강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계주에서 탈락한 박세영 선수의 억울한 감정과 실패에 대한 상실감을 부각시키려고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평소 본인은 목소리가 큰 편인데 유독 박세영 선수의 목소리가 작다보니 멍칫멍칫해 반복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억울한 것을 밝히지 않고 지나친다면 오히려 더욱 억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항변해 보이라는 의미로 질문을 유도했으며 위압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도서출간 요청 -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마치 여행 장소에 직접 가 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보니 2000년대 후반에 발간된 도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2015년 「걸어서 세계 속으로」방송 10주년을 맞아 시청자들의 관심도와 취재 내용 보강을 반영해 후속 출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 1TV [도전! 골든벨] 학교 선정 제언 - 출연신청을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100명의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참가한 학교를 보면 서울, 경기도, 경상도 지역이 대부분이다. 「도전! 골든벨」은 도전하는 과정 속에 담겨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알아본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 가급적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출연해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의 출연 학교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방송 특성상 1월과 2월초까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많이 방송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제작진이 직접 학교를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녹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때까지 신청한 학교가 없었으며 제작진이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며 이에 대해 시청자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생방송 심야토론] 신문의 TV일일 프로그램에 부제 명기 요청 - 일간신문에 매일 게재되는 TV일일프로그램 안내란에 생방송 <심야토론>의 토론 부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심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시청하는데 불편하다. <심야토론>은 밤늦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토론 주제를 미리 안다면 원치 않는 주제를 기다리느라 늦은 밤까지 기다리는 불편이 덜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서라도 부제를 반드시 명시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기획제작국 심야토론팀 - 각 신문사의 관할 사항이고 심야토론팀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른 프로그램도 각 신문사 편성표에 주제나 소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심야토론 팀이 신문사에 주제를 미리 알려 신문에 주제를 명시하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역시 신문사의 결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심야토론은 시사 현안에 대해 주제를 잡는 방송 특성상, 방송 전일에 주제가 확정됩니다. 심지어 방송 당일에도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로 미리 주제를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은 심야토론 방송 특성상 불가함을 양해드립니다. 시청자에게 심야토론 주제를 알려드리기 위한 향후 노력방송 주제는 주제가 확정된 당일 바로 심야토론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시청자상담전화 02-781-1000에 심야토론 주제를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문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토론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없이 더욱 노력하는 심야토론이 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2TV [VJ 특공대]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편 방송장면 관련 불만 - 본인은 5/3일 저녁 귀사의 상기편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야간산행 금지에 관하여 단속된바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촬영팀(여성 카메라맨)에게 촬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촬영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들었다. 그러나 방영분을 분석해본 바 당사자인 본인의 촬영거부 의사를 듣고도 촬영을 계속하였고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들을 그대로 방송에 내 보낸 점은 심히 개인의 명예와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건에 대하여 별도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간접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정당한 구제신청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답변을 받아본즉, 공단 측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귀사에 입장을 우선 듣고자 한다. 우선 당시 촬영을 주도했던 기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달라. 그리고 공단 측의 답변서에 언급된 귀사의 취재협조 요청서가 있었다고 하였던바 그 요청서 사본을 공개해 달라. 아울러, 본인은 헌법 10조에 명기되어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의거 행동한 산행이라 공단이 주장하는 자연보호법으로 본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법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 담당부서 : 협력제작국 -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2TV로 방송되는 <VJ특공대> 프로그램 담당 PD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민원인에게 심적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KBS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0월 00일 방송된 <VJ특공대> 방송분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편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야간에도 지리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원인께서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하산시키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청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방송을 했다고 항의하시지만,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방가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촬영과 방송이 좋다고 찬성하지는 않겠지요. 쉽게 비유하자면 유병언씨 같은 분이 방송에 찬성해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지요. 민원인은 현장에서 법규위반(범법)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납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KBS <VJ특공대> 프로그램에서는 국민들이 준법 의식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상기한 대로 초상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민원인은 헌법 10조에 명기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민원인께서 근거로 든 헌법을 살펴보면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인 한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적게 잡아도 수십 명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순찰을 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동행 취재한 방송제작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본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느라 수고하는 직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또한 현재 열심히 답변 문서를 작성 중인 PD의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겠지요.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2TV [VJ 특공대]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편 방송장면 관련 불만 귀사 본인을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하여 초상권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논지를 펼칠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 주변의 지인들이 그 방송을 먼저보고 연락이 와서 비로소 본인이 방영 여부를 알게 되었다. (본인의 가정에는 tv가 없다. 그 이유는 언론 같잖은 언론에 내는 시청료가 아깝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터) 그 이후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분석해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국립공원 공단측에 우선 항의와 이의신청을 하고 이제 사 귀사에 항의를 접수 하는 바이다. 귀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해명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될 시 다음 단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에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위하여 귀사의 부당행위와 위법을 다투도록 할 것이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담당부서 : 협력제작국 -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의무가, 32조에는 근로의 의무가, 38조에는 납세의 의무가, 39조에는 국방의 의무가, 23조에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35조에는 환경보전의 의무가 명기돼 있습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민원인처럼 행복추구권만 주장한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행복해서 세금내고 행복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민원인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만을 확대 해석해 금지된 국립공원 야간 산행을 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환경보전의 의무도 정면으로 위반하신 것입니다. 방송 후 민원인께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외주 제작사 제작진에게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 상황설명을 드리라 했으나 민원인이 사과방송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 부득이 이렇게 장문의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간에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송을 했으니 사과방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 보호 조치 후에 방송한 부분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쾌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전술한 대로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상호 이해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민원인께서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희망하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아침마당]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 출연자 남녀비율의 균등화 요청 - 이혼이나 사별로 아픔을 겪은 일반인들이 출연해 새로운 짝을 찾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1명의 남성이 3명의 여성을 만나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들은 브라운관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2명의 여성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살면서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기에 느끼는 실망감은 더할 것이다. 앞으로는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춰 커플 성사 가능성과 출연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아침마당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는 출연신청자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9:1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남성 출연자가 짝을 구하는 경우 많은 여성 신청자들이 물리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작진이 좀 더 많은 여성 신청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복수의 여성들이 출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전에 흔쾌히 동의하신 분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민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출연자는 실망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남녀비율을 맞추어 출연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TV [생생 정보통] '가격파괴..무한리필' 업체 선정 불만 - 방송을 보고 일인분에 만 원으로 무한리필이 가능하다는 '무한리필 족발, 보쌈 음식점'을 방문했다. 방송에서는 국내산 족발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막상 상에 나온 족발에서는 돼지 비린내가 진동해 외국산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방송을 믿고 찾아갔는데 음식을 먹어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증을 거쳐 맛 집을 선정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협력제작국 - 조리 방법은 방송에 나온 것과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족발은 국내산 뒷다리 살을 사용하고 있으며 돼지 뒷다리 살은 국내에서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입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보니 촬영이 촉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미리 가서 먹어보고 제작을 하고 있으며 사전에 전화통화로 원산지나 가게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합니다. 보통 촬영 시작하기 전 담당 피디가 미리 먹어보고 있으며 전화와는 다르게 가게의 위생이나 음식상태,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최대한 검증을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TV쇼 진품명품] 유화작품 감정 포함 요청 -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의뢰품에 대한 문화재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유화작품을 감정하는 위원은 출연하지 않아 아쉽다.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근대 유화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유화를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위원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고미술품의 가치를 재조명 한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유화에 대한 감정은 최근 유화 관련 시장이 몇 년간 고미술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유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김환기 선생님작품과 2007년 나혜석 선생님 작품을 감정,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적합한 의뢰품이 없어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화는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아 방송까지 이어지기에는 위험성이 높고 연대가 짧아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시청자들의 유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TV쇼 진품명품>도 아이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TV [강연100°C] 스튜디오 세트 제작 제언 - 박영민(78) 할머니가 출연해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그런데 강연을 하기 위해 계단에서 내려올 때 손잡이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해 넘어지진 않을지 불안해 보였다. 또한 계속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좋지 않은 강연자는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무대에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에 신경 쓰고 출연자가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제작진은 녹화 당일 출연자 사전 인터뷰 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분(휠체어 착용)들은 입장을 할 때 퇴장하는 쪽(평지)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처럼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입, 퇴장 방식을 달리하거나 강연 시 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출연한 박영민(78) 할머니의 경우 사전에 여쭙본 결과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20~30분 서있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작진은 연세와 관계없이 오래 서있거나 불편하면 의자에 앉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자가 강연 시 불편함은 없는지 늘 염두 해 두고 있으며 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 분량 지적 - 4월 1일(화)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2일(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연설을 중계방송 했다. 그런데 중계방송에 할애된 시간이 최경환 원내대표는 60분, 안철수 공동대표는 50분이다. 여당에 할애된 시간과 야당에 할애된 시간이 달라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은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각 당에 할애된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시사제작1부 - 원래 국회의원 연설 편성 시간은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늦게 들어와서 10시 15분부터 시작을 해서 11시경 끝난 것이고, 둘째 날에는 10시 5분경부터 시작해 50분경에 끝마친 것입니다. KBS의 귀책사유는 아니며 국회의원들이 늦게 들어와서 방송 시간에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긴급점검 어린이 놀이터> 매트실험 제언 -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무매트의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오래된 매트와 정상 매트에서 공을 튕겨 충격 흡수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오래된 매트보다 정상 매트에서 공이 더 높이 튕겨졌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에서 공을 튕기면 튕기는 힘을 흡수해 튕기는 높이가 더 낮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상 매트에서 공이 더 높이 튕겨져 실험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는 실험을 할 때 검증된 기관의 자문을 받아 방송의 신뢰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기획제작국 - 원래 실험 자체가 충격 흡수 실험이 아니라 탄성도를 보기위한 비교 실험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실험보다는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약식 실험이었으며, 탄성도를 유추해서 탄성도가 높으면 충격에 더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성도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제작진 내부회의를 통해 '충격 흡수에 좋다.'라는 표현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처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추적 60분] "섬 마을 비극..." 음성 변조 및 말의 속도 등에 대한 제언 -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청했다. 본인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TV화면을 볼 수 없어 늘 음성에만 의존해서 방송을 듣고 있다. 그런데 신안군 주민의 인터뷰에서 음성이 변조되어 나왔는데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나 성우의 더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기획제작2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자체의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성 변조를 약하게 할 경우 인터뷰 한 주민의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에 감사하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 1TV [한국인의 밥상] 자막표기 오류 지적 - 이번 주 주제인 '우리는 울릉도에 산다' 예고편을 시청했다. 울릉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동해 유일의 유인도'라고 자막이 표기됐다. '유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는 '동해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고 해석된다.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동해상에 위치한 섬이며 울릉군에 속해있다. 그런데 실제로 울릉군에 위치한 섬인 독도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수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협력제작국 - 울릉도 행정구역은 1개의 읍과 2개의 면, 5개의 리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표기한 것이지만 시청자의 의견을 들으니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본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방송 소재 선정 제언 -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과 부산에서 자살한 50대 남성이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끔찍한 사건에 대해 방송됐다. 「굿모닝 대한민국」은 아침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출근 준비를 하거나 등교 준비를 하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살해’, ‘자살’, ‘절도’, ‘폭행’ 등 무겁고 잔인한 내용이 자주 나와 불쾌하고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프로그램명인 ‘굿모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잔인한 내용보다는 활기차고 건강한 내용을 위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교양문화국 - ‘사건추적W’ 코너는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 중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개요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경찰관이 출연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점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1월 29일 코너에선 사건 2가지가 방송됐습니다. 먼저 <하수구에 버려진 그녀, 감춰진 진실> 편은 불륜을 의심하고 급기야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이야기로 각 미디어 보도 당시 아내의 불륜이 기정사실화 되어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제작진은 보도 이면에 감춰진 진실, 즉, 아내의 불륜은 남편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은 50대 남성이 부산 자택에서 사망한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이나 이웃과 왕래가 없이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방송 당시 설을 앞두고 있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본 사건을 방송하였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은 아침을 여는 방송인만큼, 활기차고 희망찬 소식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 양	□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택시 승차 거부 편> 법인택시기사 인터뷰 불만 - 1월 10일 방송된 <택시 승차거부>편 방송 영상을 보면 개인택시가 더 많이 승차거부를 하는데 유독 법인택시 기사만 인터뷰해서 회사만 악덕기업으로 비취졌다는 의견. - 택시조합에 가서 택시관계자를 인터뷰했는데 조합관계자도 누군지 알 수가 없을 정도여서 방송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 담당부서 : 기획제작국 -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방송영상을 보면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를 더 많이 하는데 유독 법인택시의 승차거부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고 의견주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10분간의 방송에서 개인택시 승차거부는 총 3회, 법인택시의 승차거부는 총 12회 등장합니다. 취재 당시 법인택시의 승차 거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승차거부 실험 장면에서 제작진은 총 4회의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법인택시 3회, 개인택시 1회의 승차 거부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 5번째 택시에 겨우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승차한 택시가 법인택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법인택시 기사분의 인터뷰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장면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택시조합에서 인터뷰해주신 취재원을 알 수 없어 방송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주신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제작진은 택시업계의 입장을 듣기위해 2013년 1월 6일 월요일 오후 3~4시경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6층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작진은 <소비자 리포트> 제작진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고 조합 관계자와 택시 승차 거부 문제에 대해 3-4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교양	□ 1TV [일요진단] 출연자 발언 지적 - '세월호' 사고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가 출연해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나가지 말라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발언하자 진행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피해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의미겠지만 마치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한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고 한 것 같아 시청하기 불편했다. 또한 고신대 손봉호 석좌교수는 "엄청난 비극이지만 이걸 기회로 이용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고를 기회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발언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시사제작1부 - 방송 이후 제작진도 해당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출연자의 사건이었으며 생방송이라 사전에 발언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원철 교수의 발언은 최근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듣는 학생들이었음을 칭찬하기 위함이었으며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 희생이 늘어났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꾸준히 지도하여 재난 사고의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며 손봉호 석좌교수 역시 앞으로 유사한 인재 사건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단어의 선택으로 인해 시청자들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발언토록 주의하겠습니다.
	□ 1TV [시사기획 창] '인간과 재난' 편성제언 -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인간의 행동과 심리로 분석해 보고 평소 훈련으로 재난 시 생존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세월호 사고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대형 선박사고 승무원들의 행동 유형과 비슷하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사고에서 나타난 인간의 행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는데 마치 선장과 승무원들을 옹호하는 식으로 느껴져 불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의 행동 심리와 세월호 사고를 연관 지어 방송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심리와 본능적인 행동을 통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면 사고의 원인을 인간의 행동과 심리의 당연한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방송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시의적절한 방송을 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탐사제작부 세월호 사고 및 항공기, 선박, 열차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1. 승객들이 왜 탈출을 안했는지? 2.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왜 도망갔는지? 3. 선장이 승객들에게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4. 대형사고 시 국민의 대처요령에 대한 메시지 5.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고 대처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5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다. 세월호 사고 발생이후 사고 처리에만 문제화가 됐을 뿐 위의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 초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만 이상행동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현재 세월호 사고와 연관 지어 선장과 승무원을 옹호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예 능	☐ 2TV [뮤직뱅크] JYJ출연에 대한 답변 요청 - 지난 2011년 뮤직뱅크 제작진은 JYJ가 이중계약을 한 게 문제라며 출연불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후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전소속사와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음과 정식앨범이 나오지 않아 섭외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정분쟁은 이미 2012년 11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이 후, 2013년부터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출시되었고, 올해 2014년 7월에는 JYJ정규 2집이 발매되었지만 KBS는 아직 JYJ를 출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생방송 뮤직뱅크의 출연 및 K차트의 음원들은 기본적으로 방송관련 법령에 준하여 운용되는 KBS심의실의 방송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JYJ의 타이틀곡이 위 심의기준에 부적합을 받았으므로 캐스팅 리스트 및 K-차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 2TV [해피 투게더] <정도전 스페셜> 장애인 비하 장면 및 자막고지 요청 - 배우 조재현이 곱사춤을 추는 모습을 재연했다. 곱사춤을 추며 장난하는 모습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져 매우 불쾌했다.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지역사회에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에서 해당 춤에 대한 아무런 무연설명 없이 장난스럽게 출 경우 장애인 시청자들은 조롱으로 느낄 수 있다.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될 경우 "본 곱사춤은 민속춤의 하나로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많은 사랑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곱사춤'은 한국 고유의 민속춤인 잡기춤의 한 종류입니다. 지배계층인 양반을 풍자하는 이 춤은 익살과 해학을 위해 일부러 등에 바가지나 베게 따위를 넣습니다. '곱사춤'이 최초로 나왔던 2014. 6. 14. [정도전] 45회에서 또한 한양 천도를 완료한 조정 관료들의 기쁨을 '곱사춤'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할 목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장난스럽게 출 경우 그 춤의 참뜻은 희석된 채 장애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될 경우 화면 하단에 "본 곱사춤은 민속춤의 하나로,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예 능	□ 2TV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일부 방송 내용 지적 - 연예계 활동을 하는 4명의 아빠가 아내 없이 아이와 48시간을 함께하며 육아를 책임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일깨우고 육아를 하는 과정 보다는 지나치게 풍족하고 화려한 연예인들의 생활이 비춰져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시간적 제한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다. 방송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잘 살려 육아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시청자 분께서 저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밖에서는 스타로 살아가는 연예인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 속에서 아빠의 역할을 소화하고 그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오롯이 보여 주고자 하는 리얼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그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실제 모습을 되도록 리얼하게 담으려 하다 보니 출연자들이 평소 직접 이용한 제품, 즐겨 찾는 장소나 그들의 실제관계를 바탕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연예인이기에 일반인들에 비해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특수한 일상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도 시청자들에게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고 편집과정에서 늘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매달 육아서적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주 자문위원(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리뷰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연진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물어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하며 촬영 아이템 선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만큼 시청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양분으로 삼아 재미와 더불어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예능	☐ 2TV [1대100] 문제 및 정답 상세 설명 요청 - 탤런트 유태웅이 1인으로 출연했다. '수상 스포츠 중 규정상 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됐고 정답이 '1번 요트'였다. 유태웅이 "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바람을 사용하는 요트"라고 생각해 정답을 맞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3번 보기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설명이 없어 답답했다. 앞으로는 정답 이외의 보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해당 단계는 문제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막을 생략하고 멘트만 나가기도 합니다. 설명이 맞을 경우에 자막을 내보내지 않는 등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는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TV [열린 음악회] 방청 신청 시스템 개선 요청 - 방청 신청을 위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개인정보와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입력하고 방청 신청을 클릭했는데 '신청인원이 남은 좌석수를 초과하였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떴다. 방청 신청 게시판에는 3월 18일(화) '신청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이 어렵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방청신청 시 '신청인원이 남은 좌석수를 초과하였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는 경우 선착순으로 인해 마감이 됐다는 공지를 한 것입니다. 팝업 문구가 헛갈릴 수 있는 점은 이해하며 검토 한 후 차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예 능	□ 2TV [개그 콘서트] 음주 관련 소재 불만 -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개그 콘서트」를 시청한다. 최근 방송을 보면 ‘끝사랑’, ‘편하게 있어’, ‘취해서 온 그대’ 코너 등에서 술집을 배경으로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개그 콘서트」는 시청가능연령이 15세 이상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시청가능연령과 무관하게 음주에 대한 장면이 여러 코너에서 방송돼 자녀와 함께 시청하기가 부담스럽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방송을 보며 음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고려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는 지양해 주기 바라며 건전한 소재로 건강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먼저 <개그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개그 콘서트>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며 모든 제작 내용과 심의는 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높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겨냥한 코너의 경우 간혹 음주행위가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코미디로 반영하여 웃음을 드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편하게 있어>의 경우는 음주 자체가 그 주제라기보다는 직장 생활, 그리고 눈치 없는 상사 때문에 겪는 그 애환이 주 내용이며 항상 과도한 음주장면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해서 온 그대>는 그 주 무대가 바(Bar)이긴 하지만 역시 음주 자체보다는 가게에 방문하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통해 재미를 드리려고 기획된 코너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위의 두 코너가 아니더라도 여러 장소를 바꿔가며 그 배경으로 삼는 코너들의 경우 그 배경이 술집 혹은 회식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코너 간의 철저한 사전 조율을 통해 <개그 콘서트> 한 회차에 술집을 배경으로 하는 코너가 너무 많이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 제작진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절대 취객이나 음주행위를 미화하지 않고 ‘건강한 음주’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기의 시청자들이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 <개그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얻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유케 하는 공적 책무에 더욱 더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그 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예 능	□ 2TV [뮤직뱅크] K-차트 점수집계 제언 - 매주 디지털음원과 음반판매량, 방송횟수, 시청자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K-차트 순위가 선정된다.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해외 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해외 팬들은 국내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듣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해외에서도 국내 가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현재 K-차트 집계 방식은 국내 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척 아쉽다. 타사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순위 집계 항목에 뮤직비디오 점수가 포함된다. 「뮤직뱅크」에서도 한류 열풍과 전 세계 시청자들의 온라인 이용 추세를 고려해 뮤직비디오 재생 횟수를 K-차트 점수 집계에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예능국 - 뮤직비디오 재생횟수를 순위집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공식 뮤직비디오 클릭횟수만을 가지고 집계하는 것이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인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접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클릭 횟수 조작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를 양산할 수도 있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음원차트 집계는 멜론을 포함한 4개 사이트의 집계를 두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관련해서는 유튜브가 메이저 채널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유튜브만을 채택할 경우에 불거지는 순위조작에 대한 논란 또한 잠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채널들(데일리 모션, 마이 스페이스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데 매주 집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 집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 지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사의 집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제작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드 라 마	□ 2TV [연애의 발견] 토끼 목욕장면 외 지적 - 본인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해당 기관에 토끼 학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와 전화한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 「연애의 발견」에서 토끼를 씻기는 모습과 소파에 내던지듯 토끼를 내려놓는 장면이 방송됐다고 했다. 방송을 확인해보니 주인공 한여름(정유미 분)과 강태하(에릭 분)가 토끼를 키우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탁자와 소파에 토끼를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과 샤워기를 이용해 토끼를 씻기는 장면도 나왔다. 토끼는 그루밍을 통해 스스로 몸을 씻고 작은 스트레스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동물이다.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사전 지식을 확인한 후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드라마국 - 지난 1회 방송 중 길에서 주워온 토끼를 씻기는 장면과 관련하여 많은 시청자분들로부터 동물의 취급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연애의 발견」에서 1회성 소품이 아닌 극 중 인물들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또한 아끼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생명체임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 토끼를 물로 씻기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젖게 만든 것은 제작진의 무지와 부주의의 결과임을 통감합니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토끼의 케어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다는 점, 어린 생명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동물과 관련된 제작과 표현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드라마	□ 2TV [골든 크로스] 청소년 시청기준을 벗어난 내용 제언 - 첫 회에는 강하윤(서민지 분)이 연예계 데뷔를 위해 고위 공무원인 서동하 국장(정보석 분)에게 성상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방송됐다. 2회에서는 강하윤(서민지 분)이 부당해고를 당한 아버지의 복직을 위해 정보를 모으다 적발돼 서동하 국장(정보석 분)에게 골프채로 맞아 죽는 내용이 방송됐다. 「골든 크로스」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드라마로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의식과 생명 존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진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권력에 맞서는 소시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드라마제작국 - <골든 크로스>는 평범한 한 가족이 은행매각 음모에 휘말려 파괴되자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그 음모의 실체인 거대권력의 탐욕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부가 권력이 되어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요즘 사회에서 진정한 정의실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 9,10일 방송된 <골든 크로스> 1,2회분은 이른바 골든크로스라 불리는 비밀권력단체가 한민은행의 불법매각을 위해 주인공 도윤(김강우 분)의 아버지 강주완(이대연 분)을 유혹하지만 주완이 이를 거절하자 도윤의 여동생 하윤(서민지 분)을 죽이고 그 살인죄를 아버지에게 덮어씌우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윤은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홍콩에서 강제로 서동하 국장(정보석 분)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이에 반항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협박하자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1,2부에서 성상납을 연상케 하거나 골프채를 휘둘러 죽게 하는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의식과 생명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제작진 역시 깊이 동감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하여 제작 과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부 홍콩호텔에서 하윤과 서동하가 첫 대면하는 장면은 놀란 하윤의 표정과 웃는 서동하의 얼굴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짧게 처리했으며 그 다음날 호텔 장면도 충격 받은 하윤의 표정 위주로 연출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육체적 성폭행' 사실 여부를 노출시키지 않고 하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위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부 골프채 살인 장면의 경우 권력자 집단의 악마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폭력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되 장면 자체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하윤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화면은 최대한 배제하고 서동하의 광기어린 표정과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표정을 교차편집 함으로써 서동하의 분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출했으며 액자에 뿌려진 피, 골프채를 휘두르는 손 실루엣, 하윤의 눈 클로즈업 등의 이미지 화면을 활용해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앞으로의 내용전개상 중요한 장면들이라 그 내용이나 표현 수위에 대해 제작진은 깊이 고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된 장면들의 자극성이나 폭력성이 청소년이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작진은 좀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자세로 남은 방송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 1R [정용실의 저녁길 매거진] <요양병원 안전관리 실태> 출연자 발언 지적 - 요양병원의 관리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가 출연해 “제 생각에는 간호조무사도 분명히 그 시간에 잠을 잤을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사고로 숨진 간호조무사는 해당 시간에 홀로 근무하다 화재사고를 당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부축해 대피시켰으나 본인은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인은 숨진 간호조무사의 지인이다.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환자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사람을 마치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처럼 표현했다. 지인의 사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출연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게 됐다. 앞으로 사망자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라디오1국 - 세월호 참사 이후 지하철사고 등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한 연이은 사고가 빈번한 시기에 또 다시 발생한 요양병원화재사고를 진단함에 있어 참사원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패널과 생방송으로 인터뷰 하는 가운데 패널의 순간적인 개인적 추정에 대해 저희 제작진이 좀더 디테일하게 바로 방송에서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열악한 요양병원의 일반적인 실태를 지적함에 있어 병원 측에서 인정했듯이 간호사가 1인당 최대 9명의 환자를 케어하며 24시간 상근근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화재가 난 요양병원 별관2층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단 한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모든 치매환자를 돌보기 불가능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면서 전혀 다른 맥락의 인터뷰 즉 일반적인 요양병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패널이 하면서 턱없이 간호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엔 치매환자도 간호사도 줄았을 수 있다는 추정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지, 그 간호사가 줄아서 참사가 났다거나 더 큰 참사가 됐다는 의미의 말이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맥락도 특정인의 과실에 방점을 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분들이 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인터뷰였습니다. 참사원인과 간호조무사 추정 언급은 전혀 별개의 건이지만, 추정이라 하더라도 바로 생방송에서 잡지 못하고 놓친 점 지인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인터뷰가 되어버린 점은 분명하기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작진은 파업복귀 후 첫 주 월요일인 6월 9일 방송에서 전남요양병원 유가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유가족의 입장과 간호조무사의 고귀한 희생과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어떠하든지 이 인터뷰로 인해 마음을 상한 청취자분과 지인에게도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사고관련 아이템 인터뷰 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유념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 1R [퀴즈가 좋다] 퀴즈 문제 제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시사분야의 뉴스를 퀴즈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21일(월)과 22일(화), 양일간 '세월호'를 겨냥 한 듯 퀴즈가 출제되고 있다. 아직 실종자도 많고 21일부터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고인데 이를 퀴즈 문제로 출제하니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실종자나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1라디오부 - 1R는 24시간 방송되는 채널로 재난방송만 하기 어렵고 청취자들이 정규편성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우울한 것을 벗어나 활력을 느낄 수 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문제는 현 상황에 동떨어지지 않게 퀴즈 프로그램임을 감안해 출제한 것이며 출연자(청취자)와의 대화를 통해 해당 사건을 되짚어보고 안전의식을 조금이나마 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효과음을 사용하지 않는 등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헌입니다] 전국방송 편성요청 - 다양한 건강 상식과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은 봄 개편이 되면서 동시간대에 지역 프로그램이 편성돼 「라디오 주치의 이충헌입니다」를 청취할 수 없다. 몇 년 동안 즐겨 청취했는데 이제 들을 수 없다 생각하니 무척 아쉽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도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라디오 편성기획부 - 지역 로컬방송 편성 원칙에 따라 다양화, 특성화를 고려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방송을 청취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라디오 콩을 통해 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생방송 문자참여 제언 - 경제와 법률,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줘 즐겨 청취한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는 생방송 중 문자메시지로 퀴즈의 정답이나 궁금증을 접수받고 있다. 본인도 경제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지만 방송에 소개도 되지 않고 별도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어 제작진이 확인은 한 건지 답답한 심정이다. 제한된 방송시간에 모든 사연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취자들을 배려해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라디오국 - 청취자가 보낸 문자 질문이나 사연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총 9분을 선정해 방송 말미에 소개하고 선물을 드리고 있으며 탈락된 분들은 '기본문구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명언을 매일 변경해서 문자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진행자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문자로 접수받고 알려드리고 있으며 재테크 질문은 재테크 코너에서 발췌해 방송 소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경제 질문도 가끔 오는데 그럴 경우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별도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 1FM [출발 FM과 함께] '그가 말했다' 코너 소개 글귀,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 아침 출근길에 잔잔한 클래식과 작품 속 주인공이 남긴 생각을 짧은 글귀로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그가 말했다' 코너에서 소개하는 글귀는 예술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선곡된 음악 정보만 확인되고 글귀 정보는 올라오지 않는다. 글귀를 다시 확인하려면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다소 번거롭다. 청취자의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그날의 짧은 글귀도 기재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1FM부 -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상 방송용 원고는 방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임의대로 홈페이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기술·미디어	☐ KBS 월드 스포츠뉴스 및 일기예보 편성요청 - 본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주로 「KBS 뉴스9」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편이 되면서 '스포츠 뉴스'와 '일기예보'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뉴스 말미에 국내·외의 주요 스포츠 소식과 일기예보를 통해 멀리서나마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방송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에는 현지 날씨를 알아야 기온차에 대비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종전처럼 '스포츠 뉴스'와 '일기예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KBS월드사업부 - 2014년 3월 개편이 되면서 '스포츠 뉴스'와 '일기예보'는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는 국내·외 소식이 다뤄지는데 국외 스포츠의 경우 국내 방송용으로 제한돼 부득이하게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송출부서에서 '본 화면은 저작권으로 인해 해당 방송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라고 대체 화면이 나갔으며, 일기예보는 스포츠 뉴스 뒤에 이어져 기술적으로 연결해 송출이 어렵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 관련 날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개편부터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자체 편성)을 제외한 KBS World에 모두 적용됩니다.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D-DAY 오륜기 색상 표기 제언 -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TV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오륜기(올림픽 마크)와 D-DAY가 표기되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륜기의 색상을 흰색으로만 표기해 올림픽의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오륜기는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뤄진 동그라미 고리로 5대륙의 결속을 뜻한다. 이처럼 세계인들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만큼 다섯 가지의 색상을 사용해 올림픽의 상징과 의미를 더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콘텐츠개발실 - 오륜의 색상은 인종을 의미합니다. 최근 올림픽위원회에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주로 화이트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화이트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기술·미디어	□ 지역총국 홈페이지 온에어 서비스 제언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고등학교 관계자이다. 26일(수) 「시선, 오늘을 보다」에서 안덕고 편이 방송됐다. 이 지역은 대구지역 방송을 볼 수 없는 관계로 사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KBS 대구총국 홈페이지 온에어(On Air)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전체 공지를 했다. 방송을 보기 위해 KBS 대구총국 홈페이지 왼쪽 상단 온에어 버튼을 클릭했지만 동영상 재생되지 않아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행정실로 다수 접수돼 곤욕을 치렀다. 시청자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지역총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보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지역총국의 실시간 방송을 보려면 지역총국의 홈페이지가 아닌 KBS 본사 홈페이지 플레이어K를 통해 시청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역총국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방송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온에어(On Air) 메뉴를 노출시켜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역 방송 실시간 방송보기를 이용하려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지역총국 홈페이지에서도 지역 실시간 방송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라며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 온에어(On Air) 버튼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KBS미디어 - 지역총국 홈페이지에서는 총국 TV 온에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국 홈페이지 접속 시 TV온에어 재생 오류 난 부분은 변경된 URL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온에어 클릭 시 본사 온에어와 같은 내용이 재생됩니다. 지역총국 홈페이지 접속 시 왼쪽 상단에 표기된 온에어 문구는 마치 지역총국 온에어 서비스로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모든 총국의 온에어(On Air) 문구를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기술·미디어	□ 1TV [아침마당] 홈페이지 다시보기 검색란 신설요청 - 본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 다시보기 게시판을 보면 날짜와 부제만 표기되어 있고 출연자 정보나 방송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 방송을 다시보기 위해서는 방송된 날짜나 코너제목, 부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쉽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다시보기 게시판에 출연자 이름이나 내용을 검색하면 방송 날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란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	□ 담당부서 : 플랫폼개발부 - 「아침마당」홈페이지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당」는 지난 1999년 12월 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 이전의 다시보기는舊게시판에서 2013년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은 신규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게시판은 검색창 추가가 가능하지만 舊게시판에는 검색창 추가가 어려운 형태이어서 우선적으로 시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2013년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 (http://www.kbs.co.kr/1tv/sisa/amplaza/view/vod/index.html)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검색창을 2월내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2013년 5월 이전 회차의 다시보기 페이지에 대한 검색창 제공을 위해서는 舊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신규 게시판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즉각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개편시 이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항상 시청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KB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부록 (강령,규정,기준,지침)

1

KBS 방송강령

【 전 문 】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 총 강 】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 방송 강령 】

- 제1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2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3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4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5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6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7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8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10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11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12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13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14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15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16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17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18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19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20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21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22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23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24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25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26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27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28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제29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0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31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제32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33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제34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제35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제36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제37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8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39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 한다.

제40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제41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제42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제43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사무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가. 문의, 건의, 진정 및 질의 또는 이의신청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국,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사무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 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 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 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 사무처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소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개정 91.4.29>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 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신설 2008. 8. 1>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등	10일
■ 견학 신청	3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신 월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 원 인 :
 주 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 원 인 :
 주 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 문서번호 : 시청자서비스팀 - 179호 (2009. 1. 28.)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시청자본부장
 - 위원: 감사실장, 법무실장, 편성국장, 편집주간, 교양문화국장, 기술관리국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 됨.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7. **의사록:** ①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②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견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illegible]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